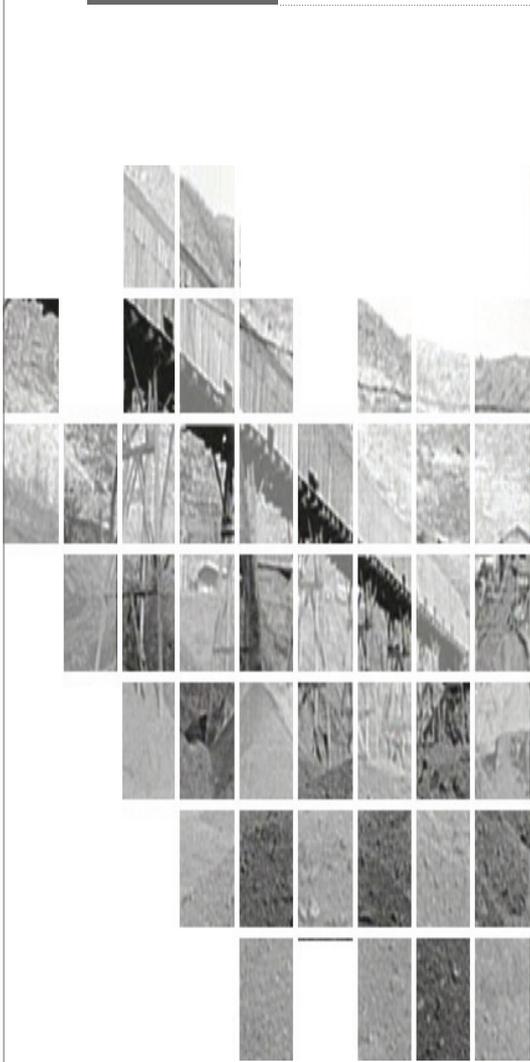


제 7 장 정선군의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제1절 석탄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및 읍면행정구획의 개편

제2절 석탄산업경제와 읍면경제의 구조변화

제3절 산업 근대화를 위한 석탄운송 기반시설의 확충

제4절 석탄산업 합리화와 정선군의 종합개발시책

제1절 석탄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및 읍면행정구획의 개편

1. 석탄생산과 인구구조의 변화

정선군의 인구구조와 변화는 정선군의 석탄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정선군의 석탄개발 초기인 1960년도 군내 석탄산업 종사자는 정선군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였다. 당시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은 472천톤으로 전국대비 8.8%였고 강원도대비 10.4%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력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

1960년에 정선군에서 탄광수는 5곳으로 이중 국영인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155,611톤을 생산하였고 민영 4곳 중에는 동명광업소가 18,371톤, 정암탄광이 47,640톤, 원동광업소가 91,120톤, 그리고 동고광업소에서 158,900톤을 생산하였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는 1955년도 11월에 석탄생산 370톤을 시작으로 12월에 5,205톤을 생산하여 그 해 총 5,575톤을 생산한 바 있고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정선군 인구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5년동안 매년 6.8%씩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전국의 석탄종사자가 정선군 내로 적극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1961년 12월 31일에는 정부가 《석탄개발임시조치법(법률제 936호)》을 공포하여 <연간 300만톤 이상을 생산하는 대단위 민영탄광을 설정한다>라는 목표하에 《산업의 쌀》과 《국민연료》로서 날로 증가하는 무연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단위 민영탄광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정부는 산업철도부설과 송변전시설, 도로 및 개발자금의 장기융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였다. 이에 힘입어 정선군내로 5개의 대단위 민영탄광이 들어섰다.

1965년도 정선군 석탄생산량은 819천톤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석탄생산업체들은 신동면 조동리의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가 387,078톤(종업원: 1,519명, 남성: 1,440, 여성: 79명), 동면 사북리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203,486톤(종

정선군에 입성한 5개의 대단위 민영탄좌

탄좌명	광구수	총매장량 (천톤)	탄좌 설립일	회사 창립일
동원탄좌	24	55,280	1962.2..24	1962. 9.24
삼척탄좌	17	53,560	1962.2..24	1962.12.10
회동탄좌	24	38,060	1962.6.27	1962.12.10
나전탄좌	27	38,980	1962.6.27	1962.12.14
우전탄좌	10	28,100	1962.6.27	1962.12.10

자료: 석탄광구통합종합보고서(동력자원부,대한광업진흥공사), 1988

업원: 1,065 남성: 1,025, 여성: 40), 동면 고한리의 동고광업소가 43,269톤(종업원: 474명, 남성: 450명, 여성: 24명), 동면 고한리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228,526톤(종업원: 464명, 남성: 452, 여성: 12명), 동면 고한리의 경월주식회사 정암광업소가 48,732톤(종업원: 519명, 남성: 503명, 여성: 16명), 동면 고한리의 정동광업소가 48,782톤(종업원: 174명)가 생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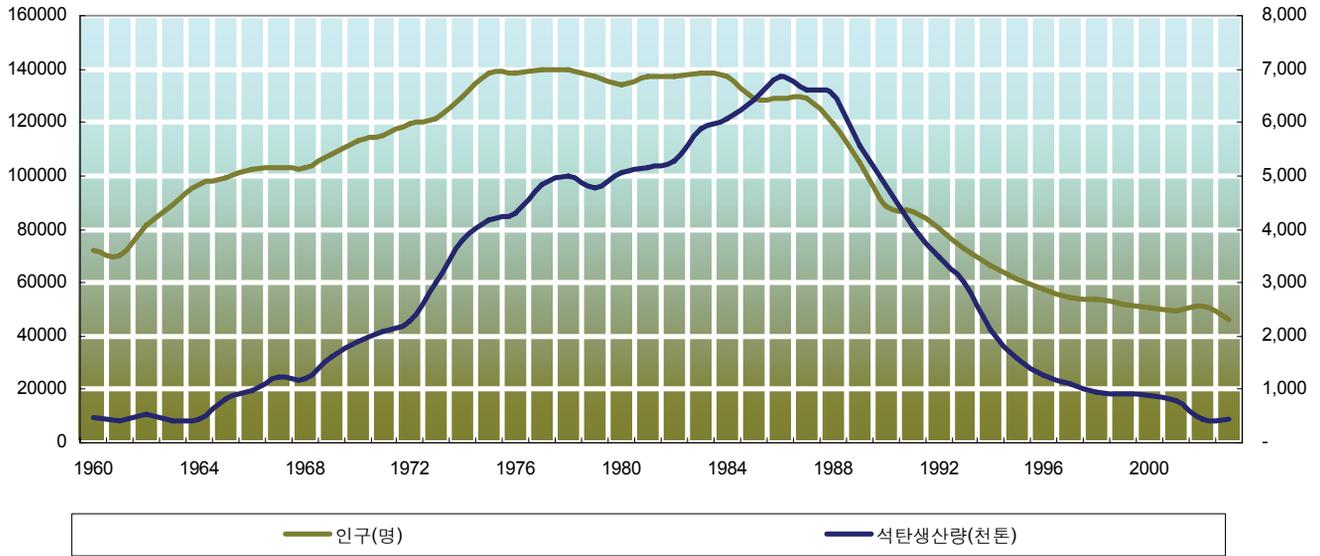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함께 국내 굴지의 민영탄광으로 성장하는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1963년도 2월에 100톤 생산을 시작으로 그해 6,335톤을 생산하고 1964년에 85,860톤을 생산한 바 있었다.

그리고 당시 석탄생산은 못하였지만 머지않아 생산에 돌입하기 위하여 동지를 탄 탄광로는 남면 무릉리의 묵산광업소(종업원: 38명)를 비롯하여 정선면 회동리의 회동탄좌(종업원: 2명), 북면 나전리의 나전탄좌(종업원: 174명)가 개발과 생산을 준비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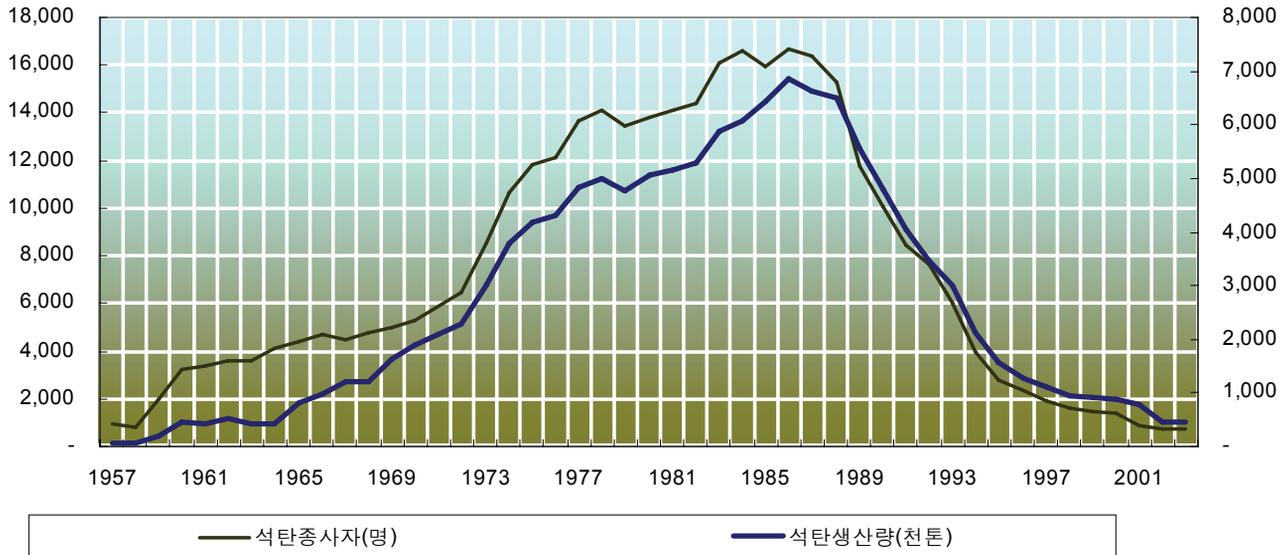
정선군의 석탄 관련 종합 비교_정선군 석탄종사자/전국 석탄생산대비 정선군 비중/강원도 석탄생산대비 정선군 비중(명,천톤, %)

	정선군 인구	정선군 석탄종사자	광부비중	정선군 석탄생산량	전국 석탄생산량	정선군 비중	강원도 석탄생산량	정선군 비중
1960	72,186	3,200	4.4%	472	5,352	8.8%	4,534	10.4%
1961	70,001	3,398	4.9%	424	5,884	7.2%	4,862	8.7%
1962	81,821	3,596	4.4%	522	7,444	7.0%	5,768	9.1%
1963	88,871	3,581	4.0%	742	8,844	8.4%	6,646	11.2%
1964	96,495	4,084	4.2%	958	9,615	10.0%	7,455	12.9%
1965	99,465	4,429	4.5%	819	10,248	8.0%	7,900	10.4%
1966	102,702	4,694	4.6%	988	11,613	8.5%	8,735	11.3%
1967	103,074	4,500	4.4%	1,219	12,436	9.8%	9,592	12.7%
1968	102,780	4,760	4.6%	1,194	10,242	11.7%	8,012	14.9%
1969	107,847	4,966	4.6%	1,618	10,273	15.8%	7,494	21.6%
1970	113,493	5,326	4.7%	1,892	12,394	15.3%	9,007	21.0%
1971	115,233	6,244	5.1%	2,079	12,515	16.6%	8,943	23.2%
1972	119,482	7,320	5.4%	2,288	12,403	18.4%	8,829	25.9%
1973	121,178	8,581	7.0%	3,018	13,571	22.2%	9,944	30.4%
1974	129,516	10,060	8.2%	3,790	15,263	24.8%	11,091	34.2%
1975	138,541	11,793	8.5%	4,180	17,593	23.8%	12,607	33.2%
1976	138,559	12,175	8.8%	4,303	16,427	26.2%	12,455	34.5%
1977	139,556	12,570	9.8%	4,838	17,268	28.0%	13,047	37.1%
1978	139,862	12,977	10.1%	4,990	18,054	27.6%	13,311	37.5%
1979	137,481	13,398	9.8%	4,770	18,208	26.2%	13,074	36.5%
1980	133,960	13,832	10.3%	5,058	18,624	27.2%	13,304	38.0%
1981	136,928	14,233	10.3%	5,166	19,865	26.0%	12,591	41.0%
1982	137,264	14,646	10.5%	5,274	20,116	26.2%	14,770	35.7%
1983	138,491	15,071	11.6%	5,871	19,861	29.6%	14,781	39.7%
1984	137,365	15,508	12.1%	6,079	21,370	28.4%	15,844	38.4%
1985	128,781	15,958	12.4%	6,419	22,542	28.5%	16,771	38.3%
1986	128,968	16,641	12.9%	6,848	24,253	28.2%	18,020	38.0%
1987	128,909	16,382	12.7%	6,617	24,273	27.3%	17,816	37.1%
1988	119,777	15,284	12.8%	6,511	24,295	26.8%	17,741	36.7%
1989	105,234	11,774	11.2%	5,554	20,785	26.7%	15,037	36.9%
1990	88,377	10,081	11.4%	4,808	17,217	27.9%	12,258	39.2%
1991	86,637	8,447	9.7%	4,033	15,058	26.8%	10,879	37.1%
1992	80,133	7,666	9.6%	3,475	11,970	29.0%	9,309	37.3%
1993	72,900	6,029	8.3%	2,997	9,443	31.7%	7,676	39.0%
1994	66,169	4,004	6.1%	2,119	7,438	28.5%	6,092	34.8%
1995	61,121	2,784	4.6%	1,576	5,718	27.6%	4,909	32.1%
1996	57,362	2,357	4.1%	1,280	4,951	25.8%	4,317	29.6%
1997	54,691	1,938	3.5%	1,095	4,514	24.3%	3,919	27.9%
1998	53,874	1,624	3.0%	940	4,361	21.6%	3,706	25.4%
1999	51,768	1,464	2.8%	906	4,197	21.6%	3,615	25.1%
2000	50,631	1,395	2.8%	875	4,150	21.1%	3,594	24.3%
2001	49,111	877	1.8%	780	3,817	20.4%	3,342	23.3%
2002	51,299	739	1.4%	444	3,318	13.4%	2,850	15.6%
2003	46,362	739	1.6%	445	3,299	13.5%	2,829	15.7%
연평균								
증가율								
60-65	6.8	6.7	-	11.7	13.9	-	11.7	-
65-70	2.7	3.8	-	18.2	3.9	-	2.7	-
70-75	4.1	12.7	-	17.2	7.3	-	7.0	-
75-80	-0.7	3.2	-	3.9	1.1	-	1.1	-
80-85	-0.8	2.9	-	4.9	3.9	-	4.7	-
85-90	-7.3	-8.8	-	-5.6	-5.2	-	-6.1	-
90-95	-7.1	-22.7	-	-20.0	-19.8	-	-16.7	-
95-2003	-3.4	-15.3	-	-14.6	-6.6	-	-6.7	-

정선군의 인구와 석탄생산량의 관계



정선군의 석탄 종사자와 석탄생산량의 관계



1965년에서 1970년대에 인구증가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석탄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미 지금의 사북읍과 고한읍 등 정선군 최대 산탄지에 둥지를 대형 탄광들이 본격 생산체제에 돌입하고 석탄생산은 1960년에 472천톤에서 1965년에 819천톤으로 그리고 5년뒤인 1970년에는 1,892천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1960년 생산대비 4배가 증가한 것이고 1965년에 비하여는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이 전국과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데 당시 전국의 석탄생산량 12,394천톤중에서 정선군의 비중이 15.3%로 증가하고 강원도생산량 9,007천톤 대비 21.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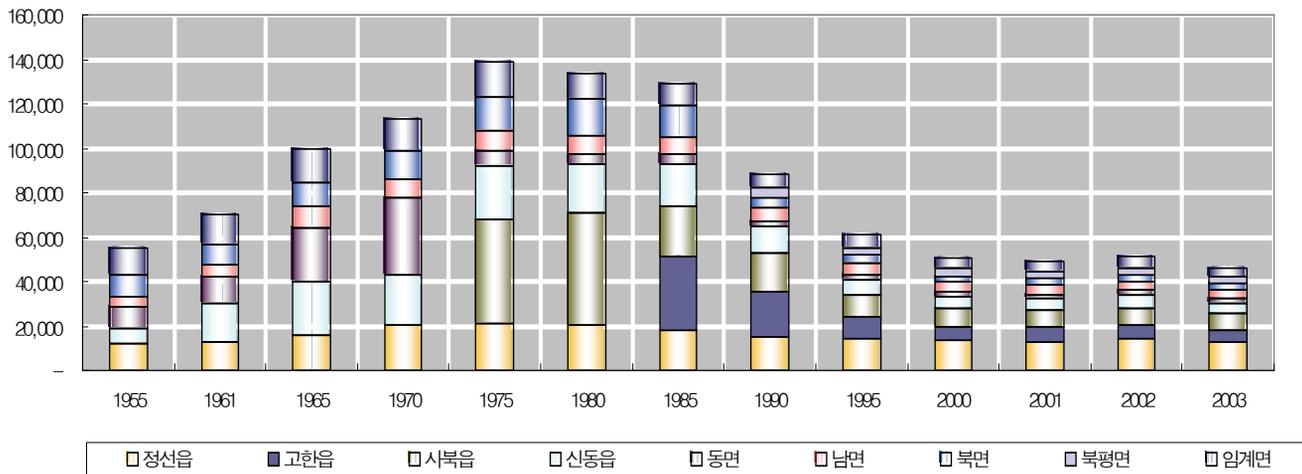
동 기간 정선군 탄광종사자들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1966년도 연탄과동을 계기로 정부가 이전까지의 석탄을 중심으로 한 주탄종유정책 대신에

정선군의 읍면별 인구변동 추이(명)

	정선읍	임계면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사북읍	고한읍	북평면	합계
1955	12,037	12,513	6,643	9,898	4,987	9,123	-	-	-	55,201
1961	12,537	13,094	17,306	12,434	5,449	9,181	-	-	-	70,001
1965	15,884	14,622	23,942	24,140	10,355	10,522	-	-	-	99,465
1970	20,364	14,789	22,551	34,495	8,655	12,636	-	-	-	113,490
1975	21,002	15,170	24,180	6,841	8,831	15,582	46,932	-	-	138,538
1980	20,029	11,749	21,633	5,002	7,877	16,628	51,042	-	-	133,960
1985	18,341	9,656	18,804	4,369	7,375	14,273	23,162	32,801	-	128,781
1990	15,332	6,187	12,004	2,796	5,987	4,727	17,218	20,010	4,121	88,382
1995	14,004	5,795	6,776	2,542	5,215	3,483	9,970	9,846	3,490	61,121
2000	13,247	4,954	5,481	2,182	4,403	2,889	7,982	6,354	3,139	50,631
2001	13,083	4,754	5,204	2,141	4,199	2,804	7,494	6,353	3,079	49,111
2002	14,711	4,903	5,488	2,229	4,290	2,967	7,795	5,678	3,238	51,299
2003	12,523	4,440	4,832	2,010	3,863	2,612	7,158	5,913	3,011	46,362
연평균 증가율										
55-65	2.8%	1.6%	13.7%	9.3%	7.6%	1.4%	-	-	-	6.1%
65-70	5.1%	0.2%	-1.2%	7.4%	-3.5%	3.7%	-	-	-	2.7%
70-80	-0.2%	-2.3%	-0.4%	-17.6%	-0.9%	2.8%	-	-	-	1.7%
80-90	-2.6%	-6.2%	-5.7%	-5.7%	-2.7%	-11.8%	-10.3%	-	-	-4.1%
90-2003	-1.5%	-2.5%	-6.8%	-2.5%	-3.3%	-4.5%	-6.5%	-9.0%	-2.4%	-4.8%

자료: 정선군통계연보, 강원통계연보, 각년도

정선군의 읍면별 인구변화 추이(명)



고질적인 연탄파동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유종탄정책으로 선화하면서 1967년에는 무연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 무연탄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석탄산업이 불황을 겪었으며 동원탄좌도 일부 갱구가 휴갱에 들어가면서 탄광 근로자가 약 1,000여 명이 감원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기에는 제1차 국제 석유위기의 계기로 정부가 주유종탄정책에서 다시 주탄중유정책으로 선화하면서 우리나라 석탄산업

은 재차 중흥기를 맞는다.

1975년에는 전국의 석탄생산량은 17,593천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70년의 12,394천톤에 비하여 5,193천톤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무려 41%에 달하였다. 이때 정선군의 인구도 높게 증가하는데 1975년 정선군 인구는 138,541명으로 1970년의 113,493명에 비하여 2만5천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정선군 인구는 1970~1975년간 매년 4.7%씩 성장하여 온 것이다.

특히, 당시 정선군에서 증가한 대부분의 인구가 탄광종사자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1975년에 11,792명으로 이미 1만여명을 넘어섰고 1970년의 5,323명에 비하여 무려 6,467명이 증가하여 5년동안 2.2배가 늘어난 것이다.

1975년도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이 전국생산량 대비 23.8%이고 강원도생산량 대비 33.2%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정선군 인구는 1978년도에 139,862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광종사자는 이후에도 수년동안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 졌다. 특히, 1975년도 사북읍 인구는 46,932명으로 정선군 전체 인구의 33.9%를 차지하였다. 이에따라 사북읍은 석탄종사자수가 단일 읍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읍이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석탄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기에 이른다. 1980년도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은 18,624천톤이었으며 이중 강원도 생산량은 13,304천톤, 정선군 생산량은 5,058천톤이었다. 정선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석탄생산량 비중은 27.2%였고,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0%로 전국과 강원도에서 정선군의 석탄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1985년에 석탄종사자는 15,958명으로 정선군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정선군 석탄생산량은 6,419천톤으로 전국 석탄생산량 22,542천톤의 28.5%를 차지하였고 강원도 석탄생산량 16,771천톤의 38.3%를 담당하고 있었다.

1985년에 사북읍의 인구는 23,162명, 고한읍의 인구는 32,801명으로 두 읍을 합하면 모두 55,963명으로 정선군 전체 인구 128,781명의 43.5%를 차지하여 정선군 인구중의 약 절반은 두 읍에서 거주한 셈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들어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특히,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가정용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9년도에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석탄경제권인 정선선의 석탄생산량을 급속히 감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교롭게도 정선군의 석탄생산량이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한 시기는 1986년도 서울아시안게임이 치러진 시기로 당시 정선군 석탄생산량은 6,848천톤을 기록하였다. 이후 2년뒤인 1988년도 서울올림픽의 해로 그 해 말 우리나라 전국의 석탄생산량은 24,295천톤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1988년도의 정선군 석탄생산량은 6,511천톤으로 전국생산량 비중이 26.8%였는데 이는 1984년도의 28.4%에서 약간 감소를 한 것이다.

한편, 1989년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석탄생산량은 하락하게 되었으며 정선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0년도 정선군 석탄생산량은 4,808천톤으로 정선군이 최고 석탄생산량을 기록한 1986년도의 6,848천톤에 비하여 무려 2,040천톤이 줄어들어 감소율이 30%에 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5.6%씩 감소하여 온 것이다.

또한, 1990년도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은 17,218천톤으로 1985년도 생산량 22,542천톤에 비하여 5,324천톤이 감소하였으며 이중에서 정선군이 38.3%를 차지하였다.

이후로 정선군 최대 산탄지인 사북읍과 고한읍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는데, 1990년도 사북읍 인구는 17,218명이었고 고한읍 인구는 20,01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사북읍이 1985년도의 23,162명에서 5,944명이 줄어 든 것이며 감소율은 25.7%에 달하고 고한읍은 832,801명에서 17,791명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무려 40%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이 정선군 인구는 사북읍과 고한읍 양대 산탄지에서의 인구감소로 급속한 하락을 하는 바, 1990년도 정선군 인구는 83,377명으로 10만명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1985년도의 128,781명 대비 40,404명이 줄어들어 감소율은 31.3%에 달한 것으로 특히, 사북읍과 고한읍의 인구감소를

모두 합치면 18,785명으로 두 읍이 정선군 인구 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들어 인구와 석탄생산량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석탄생산량 비중도 하락을 지속한다.

1995년도 정선군 인구는 61,121명이고, 탄광종사자는 2,784명으로 정선군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하락을 하였다. 특히, 이는 1990년 10,081명에서 무려 7,297명이 줄어 든 것이다. 동 기간에 탄광종사자들의 연평균 감소율은 22.7%에 달한 것으로 역대 최고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인구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전의 높은 감소율은 보이지 않는다. 2003년도 정선군 인구는 46,362명으로 이중에서 탄광종사자는 739명으로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1990년대에 탄광종사자들이 이미 상당수 정선군을 빠져 나갔거나 타업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4년도 10월에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폐쇄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은 탄광종업원 740여명도 정리되어 이후 정선군의 탄광종사자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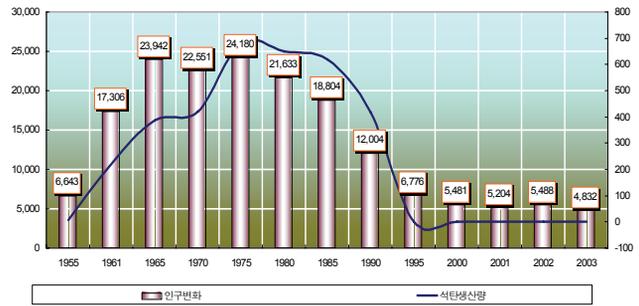
2. 석탄산업과 읍면행정구획의 개편

정선군의 행정구역은 1906년 전국을 13도제로 실시함에 따라 7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973년 정선면과 동면관할 사북출장소가 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5면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이후 1980년에는 신동면이 신동읍으로 승격되면서 3읍 4면체제로, 1985년에는 사북읍 고한리가 고한읍과 사북읍으로 분리되면서 4읍 4면 2출장소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어 1986년에는 북면출장소가 북평면으로 승격됨으로써 현재의 4읍 5면 1출장소체제로 이루어 졌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4개 읍과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5개면, 1개의 신동읍 함백출장소가 있으며, 180개의 행정리와 1,003개의 반으

신동읍의 인구와 석탄생산량 추이(명,천톤)



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임계면이 244.19km²로 가장 넓고 사북읍이 47.10km²로 가장 작다.

정선군의 행정구역 조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국 산탄지의 요충지인 정선군이 석탄산업 번창기에 상당수가 읍내지는 면으로 승격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 정선군내 6개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은 신동읍(1980년 12월 1일까지 신동면)이다. 당시 신동읍의 인구는 1955년에 6,643명이었는데 1965년에는 17,306명으로 증가하여 10년동안에 무려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신동읍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13.7%로 매우 높은 증가를 이룩한 것이다. 이후 석탄생산량 증가와 함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1980년 12월 1일에 마침내 신동면이 신동읍으로 승격되었다.

신동읍은 석탄개발과 더불어 성장한 정선군내 최초의 신흥 탄광도시이다. 신동읍이 정선군의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인구 증가를 기록한 이유는 신동읍이 정선군내에서 가장 먼저 석탄산업이 잉태한 곳으로 1948년에 의림천면에서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가 동지를 트면서 1963년들어 이미 연간 40만톤 규모로 성장하고 있었다.

당시 신동읍 조동리 소재 함백광업소의 종업원은 이미 1960년대에 정선군내 단일 탄광중에서 가장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1960년에 이미 1,207명(남성: 1,166명, 여성: 41명)에 이어 1965년에 1,644명(남성: 1,574명, 여성: 70명)으로 증가하였고 1970년에는 1,682명 그리고 1980년에는 2,073명으로 증가 하였다.

신동읍의 인구를 5년단위로 볼 때, 1975년에 24,180명으



정선군 신동면 조동리에서 거행된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사원 주택 500세대 준공식(1963년). 신동면 조동리 소재 함백광업소는 1948년 정선군 최초로 석탄 개발을 시작하여 1949년에 29천톤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생산은 1960년대 부터이다. 1963년도 함백광업소 직원은 1,894명이며 이중 남성이 1,807 명이고 여성이 87명이었다. 우측 상단은 당시 사택 모습.

로 정선군 전체 인구 138,538명의 17.4%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1975년도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의 석탄생산량은 685천톤을 기록하여 있었다. 이후 신동읍의 인구는 함백광업소

의 석탄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데, 함백광업소는 1993년도에 92천톤을 생산으로 문을 닫으면서 신동읍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도에 6,776명으로 2003년도는 4,832명으로 더욱 하락하였다.

정선군의 석탄생산 주요 읍면의 행정구역 편제 역사

1973년 7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6543호(1973. 3. 12 공포)로 정선면과 동면 사북출장소가 각각 읍으로 승격 (2읍5면) ■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로 삼척군 하장면 가목리와 도전리가 임계면에 명주군 왕산면 구절리와 남곡리가 북면에 신동면 천포리 일부가 영월군에 편입
1980년 1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10050호(1980. 10.21 공포)로 정선군 신동면이 신동읍으로 승격 (3읍4면)
1985년 10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10772호(1985. 9. 26 공포)로 사북읍이 분할 고한읍과 사북읍으로 승격 (4읍4면2출장소)
1986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11874호(1986. 3. 27 공포)로 북면 북평출장소가 북평면으로 승격 (4읍5면1출장소관할)
1989년 1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임계면 봉정리를 북면 봉정리로 편입

한편, 1960년대에 신동읍이 정선군의 석탄 메카였다면 이후 1970년대 이후부터는 신흥 산탄지로 떠오른 지역이 사북읍과 고한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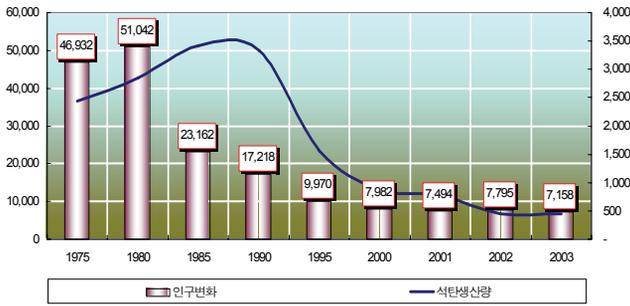
특히, 사북읍은 1962년부터 동면 사북출장소가 사북, 고한, 직전 등 3개리를 관할하여 오다가 동 지역의 탄전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급속히 성장하여 1973년 7월 1일에 사북출장소 관할구역이 사북읍으로 승격되었다.

1960년대 중반의 정선군 6개면의 석탄 매장량(천톤)

동면	북면	정선면	신동면	남면	임계면	계
123,700	66,000	49,978	27,800	2,442	-	269,920
45.8%	24.5%	18.5%	10.3%	0.9%	0.0%	100.0%

자료: 정선군통계연보(1968), 1960년대에 사북과 고한은 동면에 포함

사북읍의 인구와 석탄생산량 추이(명,천톤)



사북읍은 당시 정선군내 가장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석탄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전형적인 탄광 도시이다.

읍면별 인구에서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이 활황을 보인 시기인 1970~1980년대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은 역시 사북읍이다. 사북읍 인구는 1975년도에 46,932명으로 당시 정선군 전체 인구인 138,538명의 34%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5년뒤인 1980년에는 51,042명으로 정선군 전체 인구인 133,960명의 38%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이는 사북읍에 국내최대의 민영탄좌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수많은 사외도급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종업원은 1965년에 1,765명에서 이어 1980년에는 4,440명으로 이미 국내최대의 탄광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사북광업소의 석탄생산량은 1961년도에 68천톤의 생산을 시작으로 1974년도에 이미 100 만톤을 달성하였고, 이후 10년뒤인 1987년도에 200 만톤을 생산하는 등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으로 발돋움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석탄산업 사양화로 석탄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석탄광종사자도 함께 감소하고 이것이 사북읍의 인구를 감소시켰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2004년 10월까지 404천톤의 생산을 끝으로 폐업을 단행하였다.

한편, 정선군에서 사북읍 다음으로 산탄지인 고한읍은 사북읍에 속하여 있었으나 석탄 생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1985년 10월 1일에 사북읍에 분리되었다. 고한



동면 사북출장소가 1973년 7월 1일부로 사북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은 경관이나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광산 사양화나 도시의 쇠락 과정은 사북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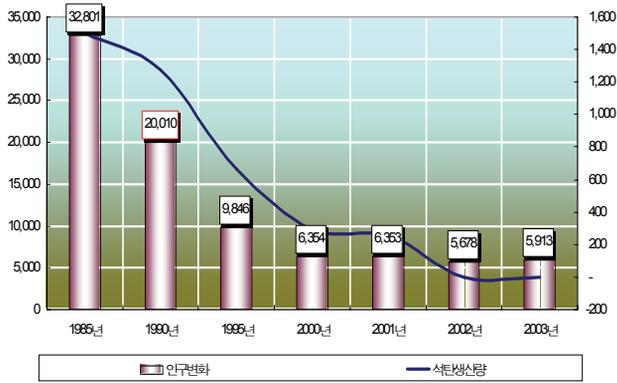
고한읍에는 일찍이 주요 석탄 광업소의 출원이 있었으며 동고광업소(1959년), 삼척탄좌 정암광업소(1961년), 정선광업소(1961년)가 그것이다.

이들 광산이 1960년대부터 석탄을 채굴하면서 광업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1971년에는 종업원 3,888명에 석탄생산 1,138,672톤의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1981년에는 종업원이 5,472명이나 되었고, 석탄생산은 2,003,520톤에 달하였다.

고한읍 인구는 1985년도에 32,801명을 기록하여 당시 정선군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여 한 때 정선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고한읍에는 국내 굴지의 민영탄좌인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있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종업원은 1970년에 1,505명에서 1980년에는 3,200명으로 인근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 이어 국내 2위의 업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는 광산종업원 3,670명에 인구가 17,883명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에는 석탄 종사자 448명에 인구 6,35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01년에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폐업을 단행하였다. 한편, 정선군내 읍면별 구수의 변동도 정선군 석탄경제의 흥망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북읍의 인구와 석탄생산량 추이(명,천톤)



1955년도 정선군의 가구수는 전체 10,692가구였으며 당시 인구는 55,201명으로 가구당 인원은 5.2명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 농촌의 가구구성 행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선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5년도에 정선군의 전체 10,692 가구중에서 정선면이 2,463가구를 차지하여 23.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북면으로 2,340가구로 21.9%를 접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 중반까지 정선군의 경제구조가 농업경제구조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후, 1955~1960년까지 5년 동안의 인구수와 가구수의 증가율을 보면, 인구 증가율은 매년 6.1%였으나 가구수 증가율은 5.4%로 인구 증가율이 가구수 증가율을 0.7% 포인

트 앞서고 있어 당시 정선군의 인구 가구동태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난 베이비붐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1년도에 5개면별 가구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때부터 농업경제권에서 이미 석탄경제권으로 이행이 진행중이었다.

가구당 인원명/가구

1955	5.2
1960	5.3
1965	5.5
1970	5.3
1975	5.2
1980	4.8
1985	4.4
1990	3.7
1995	3.4
2000	2.9
2001	2.8
2002	2.8
2003	2.6

1965년들어서는 신흥도시로 등장한 동면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1965년도 동면의 전체 가구수는 4,507가구로 정선군의 전체가구 18,046가구중에서 25.0%를 차지하여 신흥읍의 25.6%에 이어 두번째로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 동면에는 동원탄좌와 삼척탄좌를 비롯한 상당수의 탄광들이 속속 입성을 하고 생산 내지는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 시

기에 정선군의 가구당 인구수는 5.5명으로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1970년들어 동면의 가구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당시 동면의 가구수는 6,686가구로 정선군 전체 가구수 21,347가구의 31.3%로 증가하고 이전에 최고 가구수를 기록한 신흥

정선군의 읍면별 가구수 변동 추이(가구)

	정선읍	임계면	신흥읍	동면	남면	북면	사북읍	고한읍	북평면	합계	
1955	2,463	2,340	1,290	1,856	969	1,774	-	-	-	10,692	
1961	2,321	2,188	3,581	2,307	956	1,632	-	-	-	12,985	
1965	2,811	2,437	4,612	4,507	1,852	1,827	-	-	-	18,046	
1970	3,745	2,553	4,379	6,686	1,619	2,365	-	-	-	21,347	
1975	3,977	2,627	4,652	1,214	1,626	2,931	9,600	-	-	26,627	
1980	4,178	2,266	4,495	1,005	1,669	3,234	10,871	-	-	27,718	
1985	4,171	2,182	4,425	969	1,738	3,279	5,231	7,564	-	29,559	
1990	4,162	1,733	3,293	818	1,659	1,277	4,478	5,355	1,097	23,872	
1995	4,061	1,752	2,034	752	1,564	1,040	2,956	2,976	1,068	18,203	
2000	4,273	1,734	1,972	743	1,587	1,046	2,847	2,264	1,104	17,570	
2001	4,351	1,723	1,911	758	1,551	1,049	2,622	2,514	1,089	17,568	
2002	4,690	1,806	2,004	767	1,572	1,122	2,726	2,355	1,140	18,182	
2003	4,395	1,711	1,900	777	1,485	1,043	2,669	3,003	1,162	18,145	
연평균 증가율	55-65	1.3%	0.4%	13.6%	9.3%	6.7%	0.3%	-	-	5.4%	
	65-70	5.9%	0.9%	-1.0%	8.2%	-2.7%	5.3%	-	-	3.4%	
	70-81	1.1%	-1.2%	0.3%	-17.3%	0.3%	3.2%	-	-	2.6%	
	80-90	0.0%	-2.6%	-3.1%	-2.0%	-0.1%	-8.9%	-8.5%	-	-1.5%	
	90-2003	0.4%	-0.1%	-4.1%	-0.4%	-0.8%	-1.5%	-3.9%	-4.4%	0.4%	-2.1%

자료: 정선군통계연보, 강원통계연보, 각년도

면의 가구수는 4,379 가수로 20.5%를 차지하였다. 신동면 가구수는 1965년도의 4,612가구에서 233가구가 줄어 든 것이다.

1975년도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면에서 사북읍이 독립하는 해로서 독립 첫째의 가구수는 9,600가구에 달하였으며, 이는 정선군 전체 26,627가구중 36.1%로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10,871가수로 그 비중이 39.1%로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가구당인원은 1975년에 5.2명에서 1980년에는 4.8명으로 하락을 하였다.

1985년은 고한읍이 사북읍에서 독립한 해로서 정선군에서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며 당시 고한읍 가구수는 7,564가수로 정선군 전체 가구의 25.6%이었고, 사북읍의 가구수는 4,425가수로 17.7%를 차지하여 고한읍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에 두 읍의 전체 가구수는 12,795가수로 정선군 전체 29,559가구의 43.3%를 접하여 석탄산지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게 된다. 1985년도의 가구당인원은 4.4명으로 더욱 하락을 하는데, 이는 정선군 각 면읍 별로 큰 차이가 없다.

1990년들어 고한읍의 가구수는 5,355가수로 정선군 전체 가구의 2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북읍은 4,478로 18.8%를 접하였다.

그러나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사북읍과 고한읍에서 인구와 가구수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1995년에 정선군의 가구수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에 1995년에는 정선읍의 가구수 4,061가수로 22.3%를 차지하여 정선군 전체 읍면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하여 사북읍은 2,958 가구로 16.2%, 고한읍은 2,978 가구로 16.3%를 차지하여 두 읍이 그동안 누려 오던 수위 자리가 정선읍으로 이동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정선읍이 가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부상을 하였으며, 이는 정선읍이 정선군의 행정중심이라는 점에서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2003년도의 정선군의 읍면별 가구수 비중은 정선면이

4,395가수로 24.2%, 고한읍이 3,003가수로 16.6%, 사북읍이 2,669가수로 14.7%, 신동읍이 1,900가수로 10.5%를 점하고 있다. 또한, 남면이 1,485가수로 8.2%, 북면이 1,043 가수로 5.7%, 북평면이 1,162가수로 6.4%, 임계면이 1,711가수로 9.4%이며 동면이 777가수로 4.3%로 가장 적은 지역이다.

한편, 가구당인원은 1990년에 3.7명에서 1995년에는 3.4명, 2000년에는 2.9명, 2003년에는 2.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66년 '연탄파동' 이후 정선군 석탄종사자 동원탄좌에서만 1,000여명 감원

정선군은 석탄경제권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석탄산업도 부침을 함께하여 왔다. 1961년 12월에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동원탄좌, 삼척탄좌, 우전탄좌, 나전탄좌, 회동탄좌 등 많은 대단위 탄좌들이 정선군에 입성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국내 유일 부존자원인 무연탄 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선군내 탄광종사자 수는 1965년에 4,610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런데 1966년에는 10월 하순부터 기온이 급강하였다. 연탄부족 소문이 돌면서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연탄 수급사정이 악화됐다. 정부 고시연탄가격은 19공탄 한 장에 10원이었는데 17원까지 올라도 물건 구경하기 힘들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인 장기영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료대책본부를 설치하여 11월 25일까지 완전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석탄공사는 탄광의 민영탄을 무제한 매수하며 서울시는 하루 350만개 연탄을 책임 생산하며 나아가 장 위원장은 연탄 일부를 유류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유난로, 오일 버너 등 유류 연소기구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했고 수입관세도 전액 면세 조치했다. 석유판매점도 무제한 허가했으며 석유, 경유, 병커유 가격을 30% 정도 인하했다. 1966년 연탄파동을 계기로 주탄중유정책에서 주유중탄정책으로 에너지정책이 바뀐 것이다.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다. 연탄파동 해인 1966년 1,177만톤이던 수요가 1967년에는 1,27만톤으로 감소한 것이다. 생산은 1,244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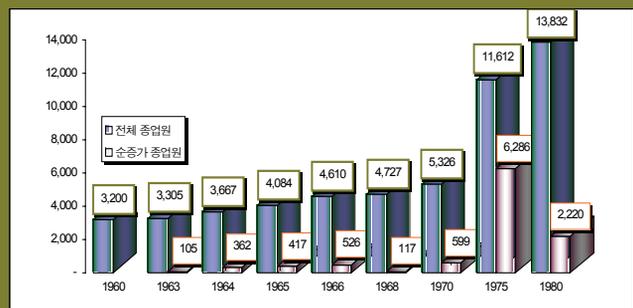
으로 117만톤이 공급과잉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탄광촌에 불경기가 닥친 것이다.

삼척지구에서만 33개 광구중에서 23개 광구가 문을 닫았다. 탄광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실질한 광부가 무려 5천여명에 달하였다. 정선군내 동원탄좌도 생산량을 30% 감축하여 34개 광구중에서 12개를 휴광하였으며 1966년도 종업원 1,765명이 1968년에는 828명으로 무려 937명이 줄었다. 정선군 석탄산업계가 처음으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맛 본 것이다. [오원철, 《한국형경제건설》 중<에너지정책과중동진술, 6면>]

이후 1973년도에 10월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은 주유중탄에서 주탄중유정책으로 바뀌면서 정선군의 석탄 생산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정선군 석탄 종사자 주이 [명]



제 2 절 석탄산업경제와 읍면경제의 구조변화

1. 지방세 부담액 변화

가. 읍면별 지방세 부담액 변화

정선군의 지방세 부담액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정선군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석탄산업중심의 정선군의 읍면별 지방세 부담액도 석탄산업 중심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동읍은 정선군에서 가장 먼저 석탄개발이 시작된 곳

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동지를 트면서 정선군의 대표적인 석탄읍으로 부상을 하였다(1973년 7월 1일부로 동면 사북출장소가 사북읍으로 승격을 한다. 이후 1985년 10월 1일에 사북읍은 사북읍과 고한읍으로 분화한다). 이에 1967년에 동면의 지방세 부담액은 4.7백만원으로 정선군 전체 지방세인 18.6백만원중 25.4%를 점하였으며 반면에 신동읍은 13.3%로 하락을 하였다. 이후 동면도 사북읍으로 분읍을 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사북읍과 고한읍이 이 이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정선군의 읍면별 지방세부담 추이(천원)

	1961	1967	1970	1975	1980	1985	1990
사북읍	-	-	-	69,547	494,360	61,093	634,269
고한읍	-	-	-	-	-	688,706	478,318
신동읍	2,052	2,478	2,884	34,014	94,120	151,064	199,695
정선읍	439	8,206	4,124	22,070	83,069	190,141	409,328
동면	537	4,725	3,685	2,475	9,595	18,031	64,587
남면	171	915	442	3,439	22,771	45,672	146,395
북면	179	843	1,318	8,785	51,506	84,277	65,705
북평면	-	-	-	-	-	-	54,854
임계면	287	1,431	1,333	8,539	22,930	33,050	95,706
본청	-	-	5,194	18,783	69,434	949,878	3,739,500
계	3,665	18,598	18,980	167,652	847,785	2,221,912	5,888,357

자료: 정선군통계연보,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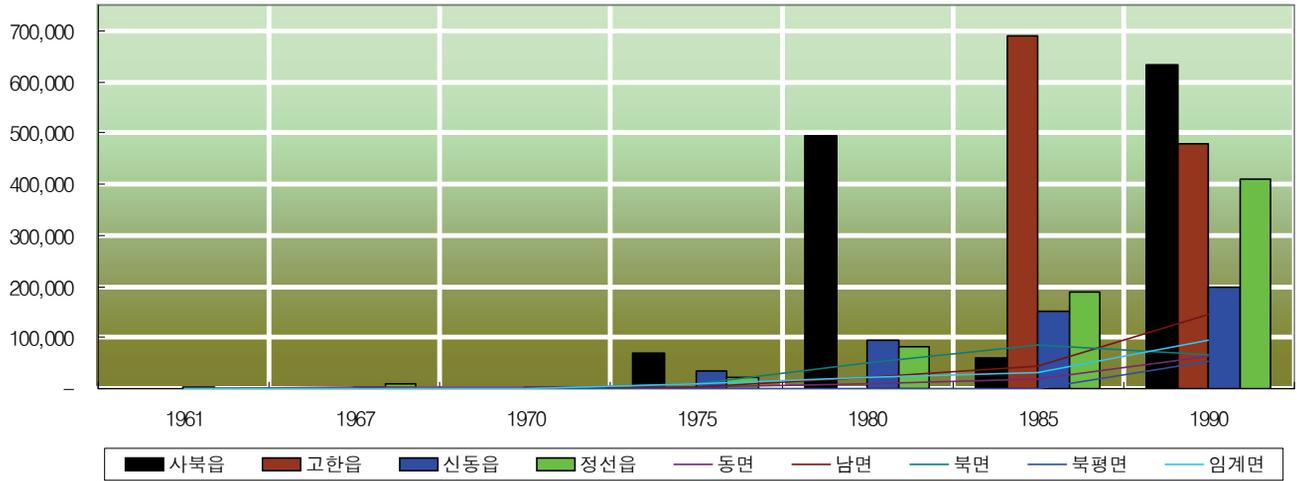
으로(1948년에 대한석탄공사 합백광업소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신동읍은 1960년대초에 정선군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부담한 읍이 되었다. 1961년도 신동읍의 지방세 부담액은 2.1백만원으로 당시 정선군 전체 지방세 부담액인 3.7백만원의 56.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후부터 신동읍의 지방세 부담액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를 새로운 석탄산지로 부상한 동면이 대체하기에 이른다. 당시 동면은 1962년에 동원탄좌 사북광

정선군의 읍면별 1인당 지방세부담 추이(원)

	1961	1967	1975	1980	1985	1990
사북읍	-	-	1,481	9,685	2,638	36,837
고한읍	-	-	-	-	20,998	23,797
신동읍	119	110	1,406	4,351	8,034	16,636
정선읍	35	480	1,050	7,614	10,362	26,698
동면	43	170	361	1,918	4,128	23,099
남면	31	99	389	2,891	6,194	24,452
북면	19	29	563	3,098	5,905	13,900
북평면	-	-	-	-	-	13,311
임계면	22	99	562	1,952	3,423	15,469

자료: 정선군통계연보,각년도. 주_1995년 이후 읍면분리 없음

정선군의 읍면별 지방세부담 추이(천원)



사북읍은 1973년 7월 1일에 동면 사북출장소에서 사북읍으로 승격되었고 고한읍은 1985년 10월 1일에 사북읍에서 분리되어 읍으로 승격되었다. 양 도시는 전국 최대의 산탄지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읍의 흥망성쇠도 같이 하여 왔다.

정선군에서 사북읍의 지방세 부담액은 읍으로 승격이 된지 2년 후인 1975년도에 정선군에서 최고의 지방세 징수읍으로 부상하였다. 1975년도 정선군의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68백만원이었는데 이중 사북읍의 지방세 징수액은 약 70백만원으로 41.5%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지방세를 부담한 것이다.

1980년에는 494백만원을 부담하여 정선군 전체 부담액 848 백만원의 58.3%를 점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후 1985년도 10월에 고한읍이 사북읍에서 분리하면서 고한읍이 지방세 부담에서 수위로 부상을 하였는데, 1985년도 고한읍 지방세 부담액은 689백만원으로 정선군 전체의 지방세 부담액인 2,222백만원의 31.8%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석탄 산지인 사북읍과 고한읍이 정선군 지역경제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읍도 1989년부터 시작한 석탄산업이 사양화 되는 1989년 이후 부터 지방세 부담액은 급격히 하락하는 현

상을 보이는데 1990년에 사북읍은 634백만원, 고한읍은 478백만원을 부담하여 정선군 전체 지방세 부담에서 각각 10.8%, 8.1%로 급락을 하였다. 당시 정선군 본청은 3,740 백만원을 부담하여 63.5%를 차지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정선군에서 최고의 지방세 부과읍으로 부상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읍면별 가구당 지방세 부담액 변화

한편, 가구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1961년도에는 신동읍이 570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사북읍과 고한읍이 이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1980년도 사북읍의 가구당 지방세 부담액은 45천원으로 정선군에서 가장 높으며 고한읍은 1985년에 91천원으로 정선군에서 가구당 지방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읍으로 변모하였다. 1990년에는 가구당 지방세 부담액이 142천으로 증가하여 정선군에서 가구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에서도 사북읍과 고한읍이 가장 높은 부담액을 납부하였다. 1975년도에 사북읍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81원으로 정선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1980년에는 9,685 원으로 5년동안에 무려 6.5배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의 사북읍 전경. 철로를 따라 탄광촌이 형성되어 있다. 1973년 7월 1일에 사북읍으로 승격되었다. 사북읍의 인구는 1975년에 46,932명에서 1980년에 5,104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도 사북읍의 인구는 당시 정선군 전체 인구인 133,960명의 38%를 차지하였다. 사북읍에는 우리나라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수많은 중소 및 영세탄광 등과 함께 하였다. 고한읍과 함께 한국 석탄 생산의 메카였다.



1970년대 고한읍 전경. 산 비탈까지 탄광촌이 들어서 있다. 1985년도 고한읍의 인구는 32,801명이었으며 당시 정선군 전체 인구 128,781명의 26%를 차지하였다. 1985년 10월 1일에 사북읍에서 분할되어 고한읍으로 신설되었다. 고한읍에는 국내 굴지의 탄광인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 사북읍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함께 우리나라 민영탄광을 이끈 한국 석탄 생산의 메카였다.

1980년에는 사북읍에서 분리된 고한읍이 가장 높았는데 고한읍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1,000원에 달하여 최고 수위를 기록하였고 사북읍은 1990년에 36,837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에서 1위를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선군의 지방세 부담액 구조는 시대에 따라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변동을 하여 왔다. 정선군의 경제구조가 석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구 변동도 발생하고 읍면이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특히, 석탄 활황시기에 사북읍과 고한

정선군의 읍면별 가구당 지방세부담 추이(천원)

	1961	1967	1975	1980	1985	1990
사북읍	-	-	7	45	12	142
고한읍	-	-	-	-	91	89
신동읍	0.57	0.56	7	21	34	60
정선읍	0.19	0.27	6	36	46	98
동면	0.23	0.9	2	10	19	79
남면	0.18	0.53	2	14	26	88
북면	0.11	0.42	3	16	26	51
북평면	-	-	-	-	-	50
임계면	0.13	0.53	3	10	15	55

자료: 정선군통계연보, 각년도주_1995년이후 읍면분리 없음

읍이 정선군의 지방 재정에 끼친 영향을 대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북읍과 고한읍을 합친 지방세 부담액이 정선군 전체 지방세 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에 41.5%에서 1980년에 58.3%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1985년에는 33.7%로 1990년에는 18.9%로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는 사북읍과 고한읍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의 석탄정책 내지는 석탄경기의 부침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석탄 활황시기에는 정선군 재정수입과 정선군 경제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하였으나 1989년이후 석탄산업 사양화시기에는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어 정선군의 산업구조를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2. 석탄산업중심의 취업구조 전환

가. 취업구조의 동태적 변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 중흥기에 한국의 석탄 메카로 떠오른 정선군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농림어업부문) 종사자는 감소를 하여 왔던 반면에 2차산업(광업제조업전기수도업) 종사자는 석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또한, 3차산업(서비스부문) 종사자는 2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석탄 생산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정선군에서 석탄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인 1961년도의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수가 22,057명으로 전체 취업자 25,531명의 86.4%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석탄을 비롯한 광공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는 2,115명으로 8.3%, 나머지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1,359명으로 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석탄개발임시조치법》(법률 제936호)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석탄증산 정책에 힘입어 정선군은 1960년대 초부터 국내 민영 탄광의 메카로 부상하였으며 동 법에 의하여 1960년대 설립된 9개의 대단위 탄좌중에서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으로 부상한 동원탄좌개발(주)(1992년에 (주)동원으로 상호변경)와 (주)삼척탄좌개발(1993년에 (주)삼탄으로 상호변경)이 현재의 사북읍과 고한읍에, 회동탄좌는 정선읍 회동리에, 나전탄좌(북면 북평2리), 우전탄좌는 북면 구절리에 입성하는 등 무려 5개탄좌가 정선군에서 채탄을 개시하였다. 또한 신동면 조동리에는 대한석탄공사 직영의 함백광업소가 1948년에 석탄개발을 시작하여 1950년말부터 석탄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 산업별 취업구조도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1965년도의 정선군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산업 종사자가 25,358명으로 정선군 전체 취업자중 66.5%였는데 이는 1961년도의 86.4%에 비하여 무려 19.9%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1960-1970년대 정선군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계
1961	22,057 (86.4%)	2,115 (8.3%)	1,359 (5.3%)	25,531 (100.0%)
1962	23,129 (80.8%)	2,435 (8.5%)	3,049 (10.7%)	28,613 (100.0%)
1963	27,137 (73.5%)	5,248 (14.2%)	4,558 (12.3%)	36,943 (100.0%)
1964	25,241 (68.8%)	6,555 (17.9%)	4,904 (13.4%)	36,700 (100.0%)
1965	25,358 (66.5%)	7,682 (20.1%)	5,097 (13.4%)	38,137 (100.0%)
1966	26,767 (68.2%)	5,937 (15.1%)	6,537 (16.7%)	39,241 (100.0%)
1967	28,536 (64.5%)	7,325 (16.6%)	8,395 (19.0%)	44,256 (100.0%)
1968	27,867 (65.1%)	8,034 (18.8%)	6,898 (16.1%)	42,799 (100.0%)
1969	27,031 (62.7%)	8,850 (20.5%)	7,240 (16.8%)	43,121 (100.0%)
1970	24,811 (54.8%)	11,421 (25.2%)	9,051 (20.0%)	45,283 (100.0%)
1972	29,405 (52.3%)	19,637 (34.9%)	7,166 (12.7%)	56,208 (100.0%)
연평균 증가율	61-65 3.5%	65-70 -0.4%	61-72 2.6%	
				38.1% 8.3% 22.5%
				39.2% 12.2% 16.3%
				10.6% 3.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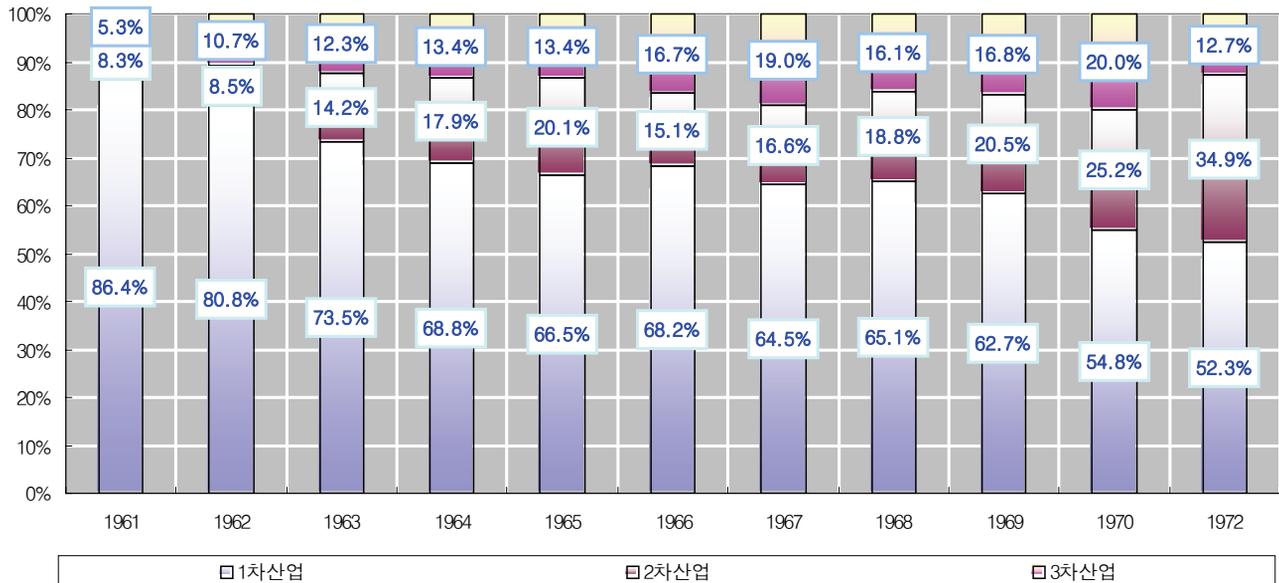
자료: 정선군통계연보, 각년도

자수에서는 5,567명이 증가하여 1961년 대비 무려 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수도 5,097명으로 증가하여 비중이 13.4%에 달하였는데 이는 2차산업의 종사자들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선군의 산업구조는 이미 1960년대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타지역과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만 5년도 안되는 동안에 정선군의 산업구조는 급변적인 것이다.

정선군의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성장을 지속되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1972년도 정선군의 2차산업 종사자는 19,637명으로 정선군 전체 취업자 56,08명의 34.9%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약 15년 동안 2차산업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2.8%에 달하는 경이적인 신장율을 달성한 것이다. 3차산업 종사자도 7,166명으로 12.7%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6.3%로 매우 높은 증가율 이룩하여 왔다. 반면에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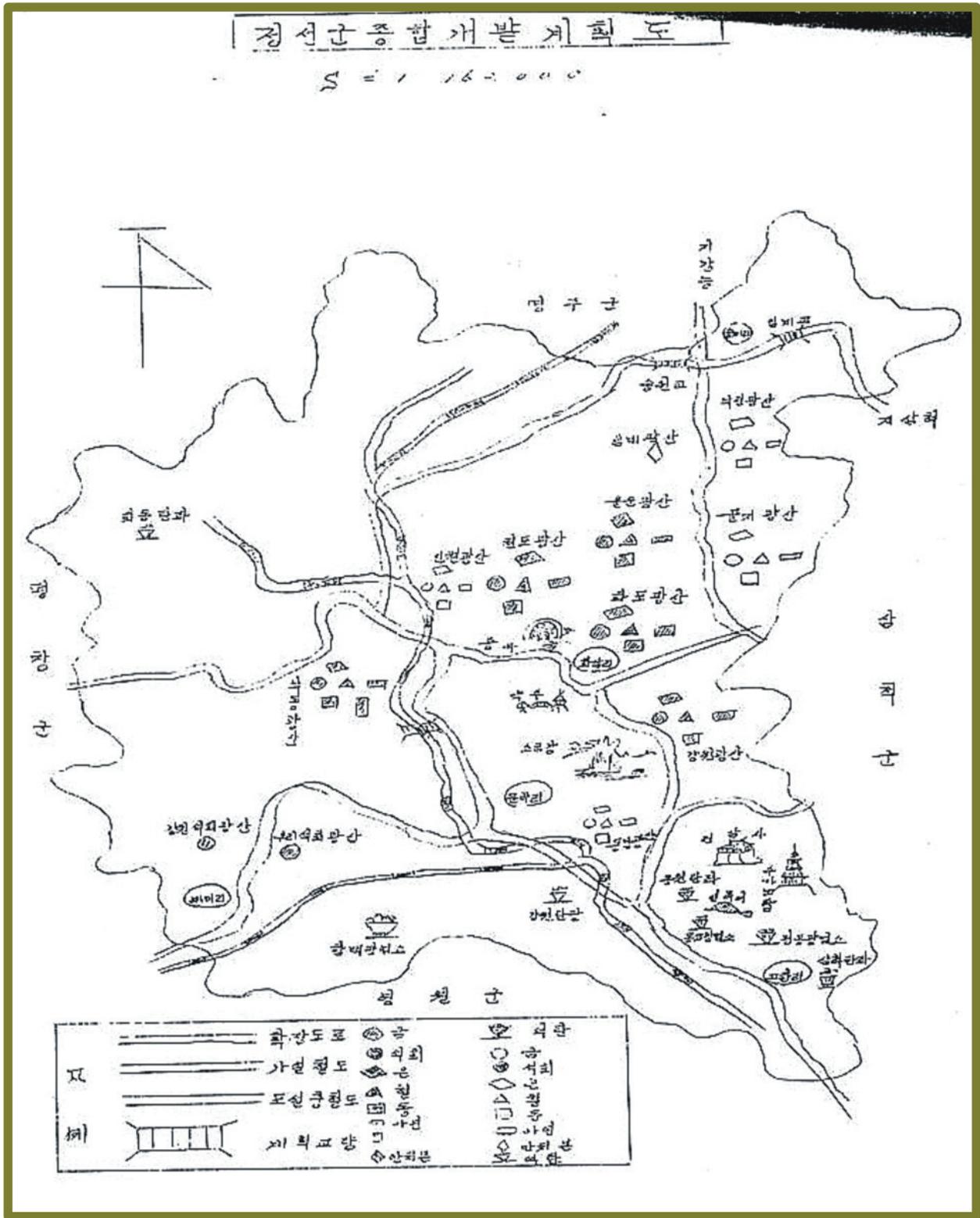
석탄산업 활황기의 정선군 산업구조_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이에 반하여 석탄을 비롯한 2차 산업의 종사자 취업자는 7,682명으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20.1%로 증가하여 1961년도의 8.3%에 비하여 11.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며 취업

수는 29,405 명으로 그 비중이 52.3%로 하락하여 왔다.

특히, 정선군에서 신동읍과 사북읍, 그리고 고한읍은 석탄 생산을 통하여 형성된 읍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데,



1960년대 중반의 정선군 종합개발계획도. 당시 계획도에 석탄광 및 일반강물들이 표시되어 있어 정선군이 광업중심의 종합개발을 실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자료: 제7회 정선군통연보 부록편(1967년도)).

이중에서도 사북읍과 고한읍은 국내 최대 민영탄광 메카로서 1985년도 두 지역의 인구를 합치면 55,963명이었으며 당시 정선군 전체 인구 128,781명의 43.5%에 달하여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나. 지역별 취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정선군의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1960년대부터 이미 산업구조가 1차 산업구조에서 2차 산업구조로 급속히 이행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정선군 전체에서 이루어진 현상은 아니며 석탄 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후에 석탄산업이 사양화를 겪게 되는 1980년 후반부터 정선군의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등 심한 몸살을 앓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정선군은 6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때부터 면별로 산업별 인구 분포와 이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나타났다. 1967년도 정선군 전체의 산업체 종사자수는 44,369명이었다. 이는 정선군 인구 103,074명의 43%에 달하는 것이다.

정선군에 있어서 1967년도는 매우 의미있는 해로서 처음으로 100 만톤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당해 년도 말에 석탄 생산량은 1,219 천톤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전국 석탄 생산량의 9.8%였고 강원도 석탄 생산량의 12.7%를 점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정선군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인 농업경제권과 석탄 생산을 중심으로 한 석탄경제권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졌다.

6개면에서 석탄경제권은 동면과 신동읍이고 반면에 임계면, 북면 및 남면은 농업경제권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정선면은 정선군 행정권이다.

정선군의 석탄개발 발원지인 신동면 조동리에는 일찌기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가 1948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석탄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는 481 천톤을 생산하여 정선군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하였다.

한편, 동면 사북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385천톤을, 동면 고한리에 위치한 삼척탄좌 정암광업소가 401천톤을 생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독립계 탄광으로 동면 고한리에 위치한 동고탄광(이후 세원탄광으로 명칭 변경)이 230천톤을 생산하였다.

1967년도 광업채취업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동면이었다. 반면에 동면은 농업부문 종사자수가 다른 면에 비하여 가장 적었다. 당시 동면의 취업자수는 10,437명이었는데 이중에서 광업채취업 종사자수는 남녀를 합쳐 모두 3,439명으로 전체 취업자중의 33%를 차지하였다.

남자만을 대상으로 경우에 비중은 44.6%로 높아져 당시 동면의 남자 2명중 1명은 광업부문에 종사한 셈이다. 동면의 경우에 농업부문 종사자수는 남성의 경우에 31.2%로 정선군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

특이한 점은 동면과 같이 남성들의 광업채취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 여성의 경우에 상업부문 종사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동면 여성의 상업부문 종사자수는 455명인 것으로 동면 전체 여성 취업자 3,117명중에서 14.6%를 차지하여 농업부문 종사자 다음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정선군 전체에서 여성의 상업부문 종사자 비중이 9.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광산지역이 상업활동이 활기를 띄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당시 광산지역의 경제는 매우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동면 다음으로 신동면도 석탄경제권으로 신동면 광업채취업 취업자는 남녀를 합쳐 2,221명으로 신동면 전체 취업자 8,308명의 26.7%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그 비중은 높아져 남성의 경우에 신동면 전체 취업자수 5,616명중에서 광업채취업 종사자수가 2,068명으로 36.8%에 달하고 있다. 정선군 전체에서 남성의 광업채취업 종사자 비중이 21.3%인 점을 감안하면 신동면은 정선

정선군의 산업별·면별 취업자 구조(1967년도)

	성별	정선면	동면	임계면	신동면	남면	북면	계
농업	남	2,931 (65.2%)	2,285 (31.2%)	3,339 (85.9%)	1,760 (31.3%)	1,592 (61.0%)	2,486 (76.9%)	14,393 (53.0%)
	녀	2,791 (84.6%)	2,203 (70.7%)	3,387 (95.3%)	1,747 (64.9%)	1,566 (87.6%)	2,449 (88.7%)	14,143 (82.2%)
광업채석업	남	55 (1.2%)	3,265 (44.6%)	15 (0.4%)	2,068 (36.8%)	254 (9.7%)	117 (3.6%)	5,774 (21.3%)
	녀	6 (0.9%)	174 (5.6%)	- (0.0%)	153 (5.7%)	11 (0.6%)	- (0.0%)	344 (2.0%)
제조업	남	99 (2.2%)	110 (1.5%)	39 (1.0%)	67 (1.2%)	12 (0.5%)	54 (1.7%)	381 (1.4%)
	녀	28 (0.8%)	41 (1.3%)	9 (0.3%)	35 (1.3%)	6 (0.4%)	22 (0.8%)	141 (0.8%)
건설업	남	321 (7.1%)	85 (3.4%)	2 (0.1%)	55 (1.0%)	89 (3.4%)	77 (2.4%)	629 (2.3%)
	녀	24 (0.7%)	16 (0.1%)	- (0.0%)	15 (0.6%)	1 (0.1%)	- (0.0%)	56 (0.3%)
전기수도위생업	남	20 (0.4%)	149 (2.0%)	5 (0.1%)	109 (1.9%)	19 (0.7%)	3 (0.1%)	305 (1.1%)
	녀	2 (0.1%)	57 (1.8%)	- (0.0%)	74 (2.7%)	7 (0.4%)	- (0.0%)	140 (0.8%)
상업	남	427 (9.5%)	614 (8.4%)	184 (4.7%)	505 (9.0%)	138 (5.3%)	137 (4.12)	2,005 (7.4%)
	녀	327 (9.9%)	455 (14.6%)	141 (4.0%)	438 (16.3%)	121 (6.8%)	142 (5.1%)	1,624 (9.4%)
운수통신업	남	113 (2.5%)	293 (4.0%)	46 (1.2%)	126 (2.2%)	68 (2.6%)	8 (0.2%)	654 (2.4%)
	녀	12 (0.4%)	58 (1.9%)	1 (0.0%)	27 (1.0%)	1 (0.1%)	- (0.0%)	99 (0.6%)
서비스업	남	527 (11.7%)	520 (7.1%)	258 (6.6%)	926 (16.5%)	434 (16.6%)	342 (10.6%)	3,007 (11.1%)
	녀	110 (3.3%)	113 (3.6%)	16 (0.5%)	203 (7.5%)	74 (4.1%)	145 (5.3%)	661 (3.8%)
분류미상	남	- (0.0%)	- (0.0%)	1 (0.0%)	- (0.0%)	2 (0.1%)	7 (0.2%)	10 (0.0%)
	녀	- (0.0%)	- (0.0%)	- (0.0%)	- (0.0%)	- (0.0%)	3 (0.1%)	3 (0.0%)
계	남	4,493 (100.0%)	7,321 (100.0%)	3,889 (100.0%)	5,616 (100.0%)	2,608 (100.0%)	3,231 (100.0%)	27,158 (100.0%)
	녀	3,300 (100.0%)	3,117 (100.0%)	3,554 (100.0%)	2,692 (100.0%)	1,787 (100.0%)	2,761 (100.0%)	17,211 (100.0%)
총계		7,793	10,438	7,443	8,308	4,395	5,992	44,369

주: 비중은 면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군 평균 전체 비하여 무려 15.5% 포인트나 높은 수치이다.

신동면 역시 동면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 종사자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 남성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자수는 1,760명으로 신동면에서의 비중이 31.3%였으며 이는 정선군 전체 평균인 53.0%에 비하면 무려 21.7% 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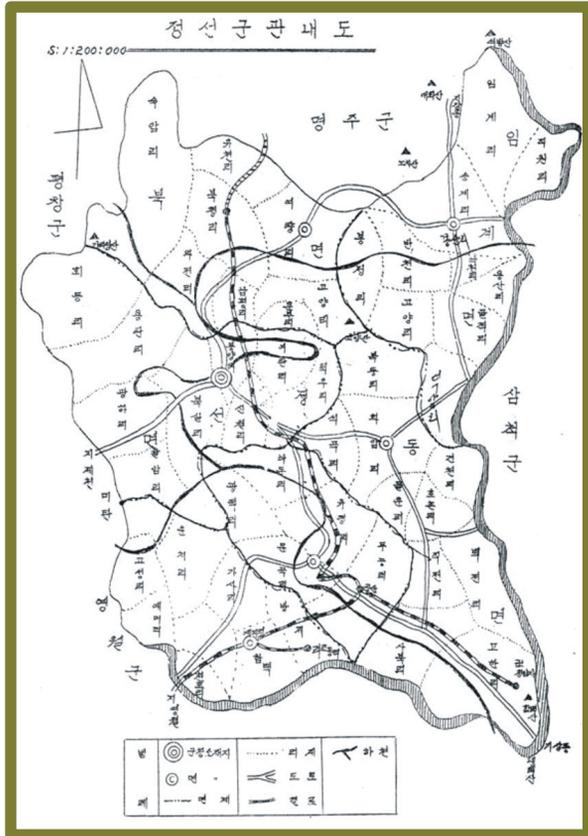
또한, 여성의 경우에 상업부문 종사자는 438명으로 신

동면 여성의 전체 취업자 2,692명의 16.2%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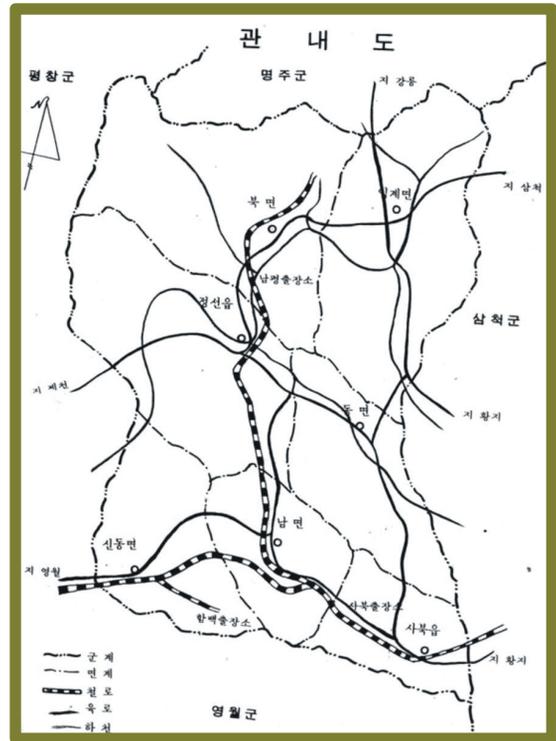
정선군 전체에서 여성의 상업부문 종사비중이 9.4%보다는 무려 6.8% 포인트가 높았다. 동면과 신동면이 남성들이 대다수 광업부문에 종사한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상업 부문에 많은 종사를 하였던 것이다.

동면과 신동면을 제외하면 기타 4개의 면들은 농업경제권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구조도 유사한 행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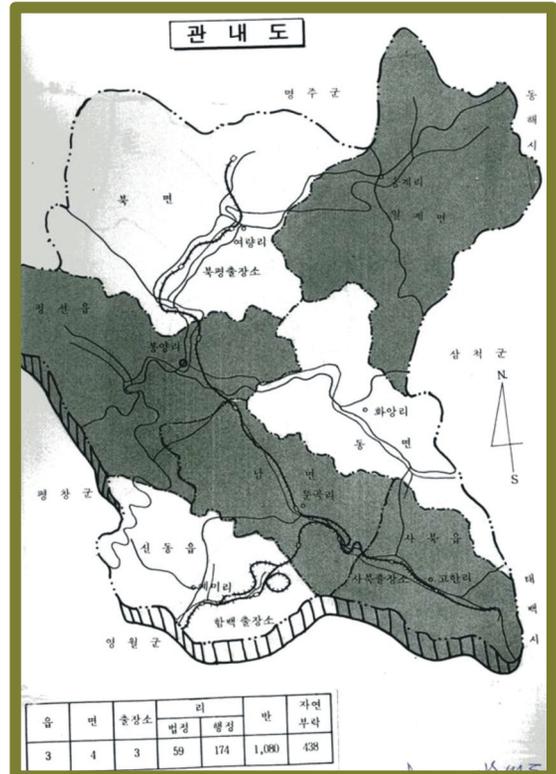
갖는다. 다만, 이들 4개면에서 차이를 발견한다면, 정선면과 남면이 농업부문 취업자 분포에서 60%정도이고, 임계면과 북면은 농업부문 종사자가 70~80% 정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1위의 농업경제권은 임계면과 북면이고, 2위의 농업경제권은 정선면과 남면이며 3위의 농업경제권은 동면과 신동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정선군 행정구역도



1970년대 정선군 행정구역도



1980년대 정선군 행정구역도

3. 석탄중심 도시로서의 금융활동 활발

가. 정선군 금융경제의 변화와 특징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정선군의 주된 금융기관은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였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일찍부터 정선군 전지역에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

마을금고가 새마을운동의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파되어 한때 전국적으로 2만6천개이상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3년 새마을금고법을 제정하여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정선군에서 새마을금고는 당시 의욕적인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172개소나 활동하였으며 우체국은 1979년에 4개소를 늘려서 활동하였고, 새마을금고도 233개소로 늘었

정선군의 금융기관수의 변화

	합 계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조흥(강원)은행	농업협동중앙회	단위농협	축협	신협		
1977	185	-	-	4	-	-	9	172
1979	250	-	-	4	-	-	13	233
1981	215	-	-	7	-	-	13	195
1983	42	-	-	7	-	-	13	22
1985	36	-	-	7	-	-	16	13
1987	39	-	-	7	-	-	16	16
1989	33	-	-	7	-	-	9	8
1991	31	3	4	4	3	5	6	6
1993	34	3	4	4	3	5	10	5
1995	36	3	4	4	3	5	14	3
1997	38	3	5	4	3	5	15	3
1999	34	2	4	4	3	4	14	3
2000	32	2	3	4	3	4	13	3
2001	31	2	3	4	3	4	12	3
2002	29	3	4	4	3	4	11	3

참고: 새마을금고는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인 통폐합으로 이후에 금고수가 격감

원래 새마을금고는 마을금고란 이름으로 새마을운동보다 훨씬 이른 1963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새마을금고로 칭하면서 집포수가 높은 증가를 이루었는데 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1970년 4월 22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것이 주요 계기였다.

새마을운동은 1971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당시 농어촌에서 중점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지방개량,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도로확충, 하천정비, 전기화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이 새마을금고가 증가하게 된 계기는 새마을운동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인 197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봄을 타고 설립되었다. 새마을금고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새

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1983년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단지 3개소만 활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중 통화금융기관의 영업망 확대와 새마을운동 등의 위축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1990년대들어 정선군에서 명실상부한 은행업무는 1991년에 강원도 연고의 지방은행이었던 강원은행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에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도 금융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재 정선군에는 조흥은행 3개소, 농협중앙회 4개소 등 7개소가 활동중이다.

이중에서도 정선군에서 석탄활황기에 군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마을금고였으며 정선군 전역에서 새마을금고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에 시대변 따라 정선군의 새마

정선군내 새마을점포수 변화

	점포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1976	194	26,506	422
1980	210	27,278	1,436
1981	195	22,926	1,702
1982	155	21,426	2,206
1983	22	10,526	2,414
1984	19	10,601	3,456
1985	16	10,382	4,946
1986	16	11,118	6,716
1987	16	11,896	9,091
1988	10	10,569	12,061
1989	9	9,655	12,963
1990	8	6,448	13,003
1993	5	4,282	10,767
1994	3	3,178	8,792
1995	1	1,123	3,434

을금고는 석탄산업의 부침과 함께 역사를 하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선군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은 금고수와 회원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자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들어 소액보다는 고액 중심으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석탄산업의 부침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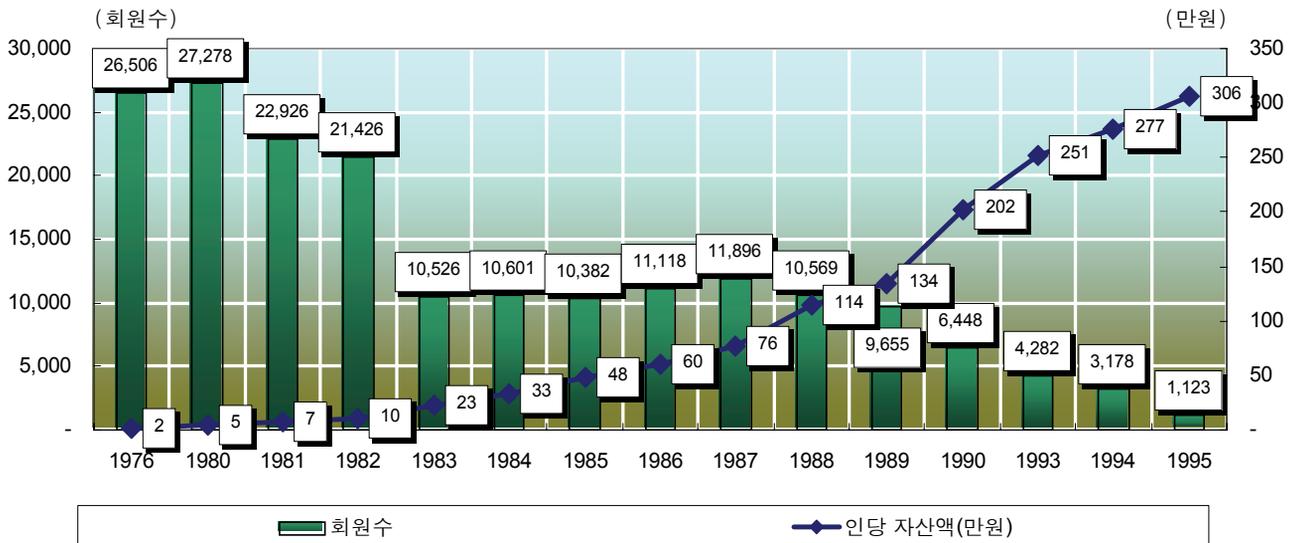
인당 자산액은 크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83년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가 정리되었는데 이때 정선군의 새마을금고수도 1982년에 155개에서 1983년에 22개로 급감하였다. 이때 회원수도 함께 감소하였는데 1982년도에 2만여명을 웃돌던 회원수가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1995년에는 단 1개소로 회원수는 1,123명, 총자산액은 3,43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사복읍에 있다.

1970년대 군민들에게 친숙한 새마을금고의 읍면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기로 보자. 당시 정선군 전체 새마을금고는 194개였는데 이중에서 신동면이 38개, 사복읍과 임계면이 각각 37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이 사복읍과 신동면에서 새마을금고수가 많은 것은 양 지역이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동면에는 대한석탄공사 직영의 함백광업소, 사복읍에는 삼척탄좌와 동원탄좌를 비롯한 수많은 중소규모의 탄광

정선군 새마을 금고회원수와 1인당 자산액 변화



즉, 새마을금고는 석탄산업 활황기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약 2004여개에 달하였고 회원수도 2만여명을 웃돌아 1점포당 100여명 이상의 고객수를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1

들이 석탄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석탄종사자들의 금융활동도 활발하였던 것이다.

1976년 당시 정선군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수는 26,506

정선군내 마을금고와 직장금고의 변화 비교

	합계			마을금고			직장금고		
	점포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점포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점포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1980	210	27,278	1,436	156	16,014	516	54	11,264	919
1981	195	22,926	1,702	152	12,248	361	43	10,678	1,341
1982	155	21,426	2,206	115	10,378	354	40	11,048	1,852
1983	22	10,526	2,414	8	798	81	14	9,728	2,333
1984	19	10,601	3,456	6	748	100	13	9,853	3,356
1985	16	10,382	4,946	3	568	124	13	9,814	4,822
1986	16	11,118	6,716	3	604	164	13	10,514	6,552
1987	16	11,896	9,091	3	1,053	220	13	10,843	8,871
1988	10	10,569	12,061	1	730	219	9	9,839	11,842
1989	9	9,655	12,963	1	542	211	8	9,113	12,752
1990	8	6,448	13,003	1	514	360	7	5,934	12,643

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정선군 인구 138,559명의 1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읍면별 회원수에서는 사북읍이 6,604명으로 25%를 차지하여 최고 수위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동면이 6,491명으로 24%를 차지하여 양 지역이 정선군의 지역금융을 선도하였다는 입증하고 있다.

한편, 자산측면에서 보면 보다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당시 총자산은 422백만정도인데 이중에서 사북읍이 254백만원으로 전체중의 비중이 60%를 차지하여 당시 새마을 금고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북읍에 집중되어 사북읍이 정선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짐작할만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신동읍의 자산은 96백만원으로 23%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마을금고와 직장금고로 구분된다. 마을금고는 지역의 일반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직장금고는 말 그대로 해당 직장내에서 운영되는 금고이다.

1976년 정선군 읍면별 새마을금고 내역

	금 고 수	회 원 수	자 산(천원)
정선읍	26(13%)	4,460(17%)	21,912(5%)
사북읍	37(19%)	6,604(25%)	254,493(60%)
동 면	14(7%)	1,156(4%)	5,132(1%)
남 면	16(8%)	1,490(6%)	7,544(2%)
북 면	26(13%)	2,929(11%)	12,518(3%)
임계면	37(19%)	3,376(13%)	24,016(6%)
신동면	38(20%)	6,491(24%)	96,875(23%)
합 계	194(100%)	26,506(100%)	422,4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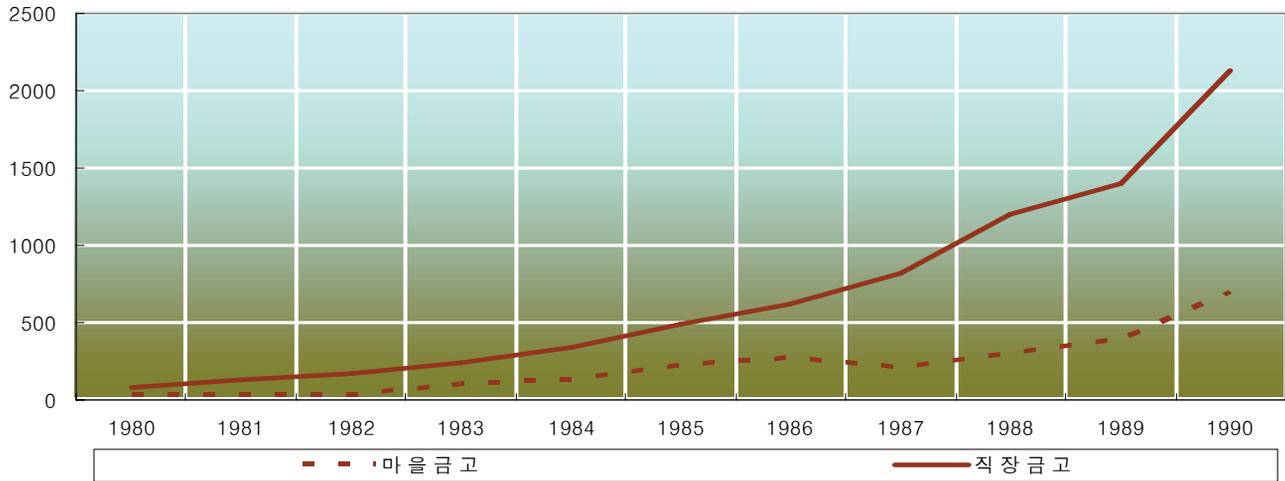
새마을금고를 마을금고와 직장금고고로 구분하여 보면 직장금고가 월등한 회원수에서나 실적면에서나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을금고는 1983년에 대대적인 통폐합을 거친이후 부터는 쇠락을 하기시작하는 반면에 직장금고는 성장을 지속한다.

1983년까지는 마을금고가 점포수에는 직장금고를 3배정도 앞선 실적을 보여주며 회원수에서도 양 자는 공히 1만

정선군내 마을금고와 직장금고의 점포당 및 인당 자산액 비교

	점포당 자산액(백만원)			1인당 자산액(천원)		
	마을금고	직장금고	크기비교 (직장금고/마을금고)	마을금고	직장금고	크기비교 (직장금고/마을금고)
1980	3	17	5	32	82	3
1981	2	31	13	29	126	4
1982	3	46	15	34	168	5
1983	10	167	16	102	240	2
1984	17	258	15	134	341	3
1985	41	371	9	219	491	2
1986	55	504	9	271	623	2
1987	73	682	9	209	818	4
1988	219	1,316	6	301	1,204	4
1989	211	1,594	8	389	1,399	4
1990	360	1,806	5	700	2,131	3

마을금고와 직장금고의 인당 자산액 변화(천원)



여명을 웃도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산실적면에는 직장금고가 월등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시말하면, 직장금고가 내실있고 튼튼하다는 것이고 마을금고는 부실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실한 마을금고를 1983년에 대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마을금고의 자산액은 1억~2억원 내외였던 반면에 직장금고는 1980년에 9억원부터 시작하여 1985년에는 48억원으로 석탄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는 해인 1989년에는 128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다.

마을금고와 직장금고를 점포당 자산액으로 비교하면 마을금고는 1982년까지는 3백만원으로 매우 영세하였다. 이후 1983년에 마을금고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점포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점포당 자산액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1983년에 1천만원에서 1985년에는 4천만원으로 증가하고, 1988년에는 마침내 2억원대를 돌파하였다.

한편, 직장금고의 점포당 자산액은 1980년에 1천7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니, 1983년에는 1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매년도 1억원 이상씩 증가하는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는데, 1988년에는 마침내 13억원대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18억원대로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점포당 자산액에서 직장금고는 마을금고에 비하여 15

배 이상 규모가 컸다.

이미, 동원탄좌는 1979년도에 (동원탄좌직장새마을금고)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마을금고와 직장금고를 1인당 자산액으로 비교하면, 마을금고는 1982년까지는 3만원에 불과하였다. 이후 1983년 구조조정으로 1인당 자산액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1983년에 10만원으로, 1985년에는 22만원으로, 1990년에는 마침내 70만원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직장금고의 1인당 자산액은 1980년에 8만원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1983년에는 24만원으로 늘어났다. 1988년도에는 마침내 120만원으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213만원으로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에따라, 1인당 자산액에서 직장금고는 마을금고에 비하여 3-4배가 컸다.

나. 석탄읍면중심의 금융경제구조 개편

한편, 정선군의 읍면별로 마을금고와 직장금고의 점포수, 회원수 및 자산액을 비교하면 보면, 읍면별 금융경제가 활발한 지역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구조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있다

정선군에서 석탄경제가 활성화를 보인 1985년과 1990년

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선군에서 1985년도의 읍면행정구획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북평면이 1986년도에 북면에서 새로운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미 동원탄좌는 1979년도에 〈동원탄좌직장새마을금고〉를 운영하였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도 1970년부터 직장금고를 운영하는 등 정선군내 대부분의 탄광들이 1970년대 중반 내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직장금고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에 1985년과 1990년도의 정선군내 마을금고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이 직장금고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선군의 새마을금고는 마을금고라기보다는 직장금고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5년도에 정선군내 새마을금고는 총 16개였으며 이 중에서 마을금고가 3개, 직장금고가 13개로 직장금고가 월등히 앞섰다. 또한, 자산액은 마을금고가 1억2천만원으로 영세하였던 반면에 직장금고는 48억원에 달하였다.

이에 직장금고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회원수와 자산액에서 사북읍과 고한읍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북읍에는 직장금고 2개소에 회원수는 3,371명, 자산액은 2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북읍은 당시 정선군 전체 직장금고 회원수 9,814명 중 34%를, 자산액에서는 정선군 전체 직장금고액 48억원 중에서 60%를 점하였다.

고한읍은 직장금고 2개소에 회원수는 3,463명, 자산액은 15억원이었다. 이에 고한읍은 회원수에서 35%, 자산액에서 30%를 점한 것이다. 사북읍과 고한읍을 합친다면, 회원수에는 75%(6,835명), 자산액에서는 43억원으로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선군에서 금융허브는 사북읍과 고한읍이었고 이를 통하여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정선군 전체 금융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일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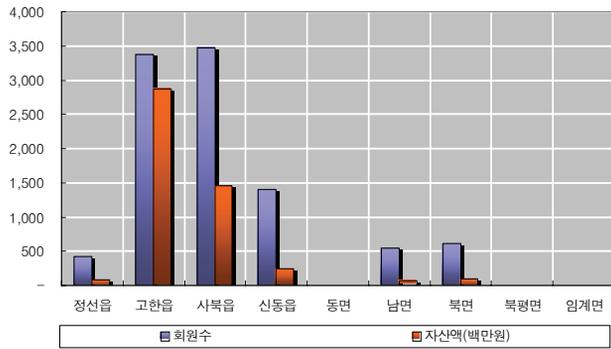
다시말하면 광업채취업인 석탄산업의 중흥이 정선군 금융서비스업의 거대한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1990년의 직장금고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회원수와 자산액에서 사북읍과 고한읍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북읍에는 직장금고 2개소 회원수는 3,371명, 자산액은 2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사북읍은 당시 정선

정선군내 읍면별 마을금고와 직장금고의 비교

	합계			마을금고			직장금고			
	금고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금고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금고수	회원수	자산액(백만원)	
1985	정선읍	2	422	81	-	-	-	2	422	81
	고한읍	4	3,371	2,867	-	-	-	4	3,371	2,867
	사북읍	2	3,463	1,458	-	-	-	2	3,463	1,458
	신동읍	4	1,835	356	2	433	112	2	1,402	244
	동면	-	-	-	-	-	-	-	-	-
	남면	2	548	73	-	-	-	2	548	73
	북면	2	743	111	1	135	12	1	608	98
	북평면	-	-	-	-	-	-	-	-	-
	임계면	-	-	-	-	-	-	-	-	-
	계	16	10,382	4,946	3	568	124	13	9,814	4,822
1990	정선읍	1	266	55	-	-	-	1	266	55
	고한읍	3	2,176	5,707	-	-	-	3	2,176	5,707
	사북읍	2	2,488	6,662	-	-	-	2	2,488	6,662
	신동읍	2	1,518	579	1	514	360	1	1,004	219
	동면	-	-	-	-	-	-	-	-	-
	남면	-	-	-	-	-	-	-	-	-
	북면	-	-	-	-	-	-	-	-	-
	북평면	-	-	-	-	-	-	-	-	-
	임계면	-	-	-	-	-	-	-	-	-
	계	8	6,448	13,003	1	514	364	7	5,934	12,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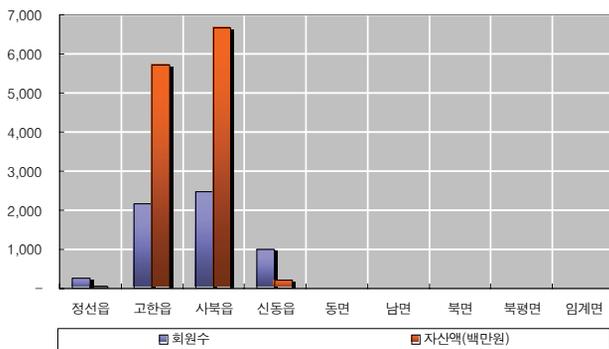
1985년도 정선군내 읍면별 직장금고 자산액 비교



군 전체 직장금고 회원수 9,814명중에서 34%를, 자산액에서는 정선군 전체 직장금고액 48억원중에서 60%를 점하였다.

고한읍은 직장금고 2개소에 회원수는 3,463명, 자산액은 15억원이었다. 이에 고한읍은 회원수에서 35%, 자산액에서 30%를 점한 것이다. 사북읍과 고한읍을 합친다면, 회원수는 5,934명으로 정선내 9읍면중에서 79%를 점하였고, 직장금고 자산액은 126억원으로 98%를 점하였던 것이다.

1990년도 정선군내 읍면별 직장금고 자산액 비교



제 3 절 산업 근대화를 위한 석탄운송 기반시설의 확충

1. 석탄수송용 산업철도의 부설

정선지역의 교통 시설은 무연탄의 원활한 수송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이후 석탄산지인 정선군을 비롯한 강원도의 석탄지대를 중심으로 산업철도 부설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이에따라 경제개발계획기간에 우리나라 화물수송이 석탄수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실상, 1966년도에 발생한 연탄과동도 따지고 보면, 석탄수송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월동기 석탄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는데 당시에 석탄은 가정 민생용 주력 연료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방이후 삼척지구의 공장들이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을 제외하고는 휴업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삼척지구의 석탄을 수송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6.25전란이후 석탄생산 부진으로 전력 생산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국가 시책으로 무연탄의 안정 공급을 위하여 정부는 대백지구의 철도 부설을 서둘러 1955년 12월에 영암선을 개통하였는데, 이는 중앙선의 영주역과 장성탄광의 철암역을 연결하는- 86.4km구간이었다.

나아가 정부는 탄광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광개발과 관련되고 있는 관련 시설들을 최대한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대단위탄좌의 개발기점까지의 철도, 도로, 송전선 및 변전소 등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기타 석탄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석탄수송용 차량 및 선박의 확보와 목호항만시설의 확장 등 관련사업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당시 정선탄전에는 대형탄광들이 입주를 하여 생산을 하거나 시설을 확충하고 있었다. 주요 탄광들은 신동읍에서 1948년부터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가 채굴을 시작하였고 고한에서 1959년부터 삼척탄좌가 정암광업소를, 사북읍에서 1960년부터 동원탄좌가 무연탄 채굴을 시작 크고 작은 업체에서 연간 477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25.7%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이 되었다.

정선지역에 최초로 철도가 개통된 것은 1957년에 신동읍의 예미역~함백역까지 산업철도인 태백선의 분지선인 함백선이 개통된 것을 계기로 하여 1966년 예미역~고한역까지 개통되었고, 그 뒤 황지까지 연장되어 영동선과 이어지게 되었다.

1962년 5월에는 정선선 철도개설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정선군내 각종 석탄수송 산업철도 부설은 사북읍과 고한읍을 중심으로 정선군이 한국 최대의 산탄지로 발돋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선군의 인구는 높은 증가를 이룬다. 사진은 고한선(고한-황지) 개통식 장면 (1973년 10월 16일)

강원도의 주요 석탄수송 산업철도 내역

철로명	구간	길이(km)	역수
목호항선	동해 -목호	5.9	1
삼척선	동해 -삼척	12.9	3
북평선	동해 -삼화	6.4	1
태백선	제천 -백산	103.5	20
정선선	증산-구절리	45.9	6
함백선	예미 -조동	9.6	1

이 사업의 총연장은 42km이며, 총공사비 7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해발 500~850m의 험준한 산악지대이고 또한 구비가 심하여 31개소의 터널과 20여개의 교량이 건설되는 난공사였다. 이 철로 개설 사업은 1967년 1월 20일 완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 석탄매장량의 56%를 차지하는 무진장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966년부터는 정선 나전탄전의 무연탄 수송의 원활을 위하여 정선역~구절리역간 24km의 철도 개설사업이 3년 계획으로 착공되었는데, 1969년 10월 15일 나전역 개통, 1971년 5월 21일 여량역이 개통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974년 12월 20일 정선 구절역을 종점으로 여량~구절간이 개통되었다. 따라서 구절역을 시점으로 정선 증산역을 경유



정선군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석탄수송용 산업철도망

하여 충북 제천역에 접속되어 중앙선과 연결되었으며, 증산역에서 사북 고한을 거쳐 태백선과 접속함으로 인해 영동선과도 연결되었다.

한편, 정부는 보다 원활한 자원의 수송과 여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태백선 함백~조동간 2.4km의 복선화 사업이 1974년 12월 착공하여 1977년 4월 1일 완공되었다.

정선선 본선의 그 주변에서 벌채되는 목재 등의 임산자원도 중요한 화물이었다. 정선선 본선의 건설은 원래 예미~정선 사이의 42km를 1962년에 착공하여 1964년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도에서 그 중요성 때문에 수정 보완되어 증산~고한 12km 정선~회동 15km, 정선~구절리 24km가 추가되었다.

이에 총계 93km의 철도를 196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62년 5월 10일에 착공된 예미~정선 사이 42km의 건설에 투자되는 총액은 외자 202만 7천달러를 포함하여 28억 6,600만원이었다.



무개차(Gondola Car)는 지붕이 없어 쇄정보호의 필요가 없고 유개차에 적재할 수 없는 석탄, 자갈, 대회를 등 다종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최근에는 Car Dumping System에 의한 무연탄 수송에 주로 사용된다.

정선군의 산업철도망 건설사

연 월 일	주 요 내 용
1950. 3. 1	영암선 건설 공사 영주내성 간 14km준공 개통
1952.10.15	함백선(제천km간) 건설공사 재착수
1953. 9.28	영암선(영주철원 간) 건설공사 재착수
1955.12.31	영암선(영암철원 간) 전통
1956. 1.16	영암선 전통식 거행·동점역 구내
1956. 1.17	영월역에서 영월선 개통식 거행,영월역 구내에서 함백선(영월·조동 간) 기공식
1956. 7.31	철암역 역사 준공
1957. 3. 9	함백선(영월·함백 간) 60.7km전통
1961. 8. 8	황지지선 건설 공사 착수
1961. 8.12	황지본선(통리·심포리 간) 건설공사 착수, 63년 1월 1일 개통
1962. 5.10	정선선(예마·정선 간), 경북선(점촌·영주 간) 건설공사 착수
1963. 5.27	영암선, 철암선, 동해북부선 등 선로 명칭변경, 영동선·목호항선
1966. 1.13	태백선에 자미원, 증산역, 고한선에 사북, 고한역 설치
1967. 1.20	정선역에서 증산·정선 간 개통식
1969. 9.12	고한선 고한·황지 간 기공 및 태백, 중앙, 영동선 전철화 착공
1969.10.15	태백선 정선·나전 간 개통
1973.10.15	고한선 고한·황지 간 개통
1973.11.10	추전역사 준공
1974. 6.20	태백선 제천·고한 간 전철 개통
1975. 1.24	구절리 역사 준공
1997. 3.28	영주 ~ 철암 간 전철 개통, 디젤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로 운행

정선군의 산업철도망 개통 현황

연 월 일	선 명	구 간	연 장(km)	비 고
1941. 8. 1	영동선	철암·목호항	143.5	-
1955. 9.15	영동선	영주·철암	86.4	-
1957. 3. 9	태백선	제천·함백	57.0	-
1962.12.20	황지지선	백산·황지	9.0	-
1963. 5.30	황지본선	통리·심포리	8.5	-
1967. 1.20	태백선	예마·정선	41.6	-
1971. 5.21	태백선	정선·여량	15.8	-
1973.10.16	고한선	고한·황지	15.0	-
1974. 6.20	태백선	제천·고한	80.1	산업선 전철화
1975.12. 5	영동선	고한·동해	85.5	산업선 전철화
1977. 4. 1	태백선(북선)	예마·조동	6.3	산업선 전철화
1994.11. 7	태백선	청령포·영월	3.1	이설
1997. 3.28	영동선	영주·철암	87.0	전철화

2. 수송량 증대를 위한 전철화 추진

1966년도에 개통되어 정선군의 산탄지를 가로질러 태백으로 연결된 태백선(제천→백산)은 강원도 일원인 영월, 함백, 정선, 구절리, 사북, 고한, 황지 등 우리나라 요지의 탄광지대를 통과하는 철도이다.

즉, 태백선을 따라 대한석탄공사 직영의 함백광업소의

무연탄을 함백역에서 실어 날았으며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동원탄좌가 자리잡은 사북역에서 무연탄을 실고, 동원탄좌와 쌍벽을 같이한 삼척탄좌가 위치한 고한역에서 무연탄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산업용 철도가 완성된 후에도 석탄 수송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디젤기관차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9년 9월부터 태백선 산업철도 전 구간에 대한 전철화를 착수했는데 각 구간의 전

철화 완료 날짜는 다음과 같다. 이로서 태백선은 전구간이 전철화한 것이다.

- 청량리↔제천간 155.2km, 1973년 6월 20일 전철화
- 제천↔고한간 80.1km, 1974년 6월 20일 전철화
- 고한↔백산간 23.7km, 1975년 12월 5일 전철화
- 철암↔북평(동해시)간 61.8km, 1975년 12월 5일 전철화

산업철도의 전철화 효과(화물차의 경우)

구분	노선	전철화 이전	전철화 이후	향상효과(%)
속도향상 (직통화물기준) (단위 : 시간)	영동선	3:00	2:30	83%
	태백선	3:20	2:40	80%
	중앙선	6:00	4:00	66%
열차회수 증가 (단위 : 회)	영동선	18	28	155%
	태백선	17	26	152%
	중앙선	34	45	132%
수송력 증대 (단위 : 천톤)	영동선	1,870	3,720	198%
	태백선	4,800	7,800	162%
	중앙선	10,400	14,200	136%

수송능력이 480만톤이었으나 전철화한 후 열차회수가 26회로 증가되었고 수송능력은 연간 780만톤으로 62%가 증가했다.

영동선은 종전 1일 18회에 연간 수송능력이 187만톤이었으나 개통후에는 1일 28회에 연간 수송능력은 약 2배인 372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속도는 전철화 이전보다 83%가 향상되었다. 이처럼 산업 전철화는 지형적인 수송장애를 극



1957년에 정선군 신동읍의 예미역_함백역간 태백선의 분지선인 함백선이 개통되어 정선군 석탄을 본격적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전철화된 총길이는 320.8km에 달하는 것으로 전 구간이 전철화된 것은 1975년 12월 5일이였다. 전철 개통 전후 수송 능력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다.

열차운행 속도가 빨라져 열차 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수송 능력이 향상됐다. 태백선은 종전에는 1일 17회에 연간

복하고 산업의 대동맥 구실을 한층 더 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앙선은 종전 열차회수 1일 34회, 수송능력은 연간 1,040만 톤이었는데, 전철화한 후에는 1일 45회, 수송능력이 연간 1,420만 톤으로 증가했다.

3. 산업철도와 석탄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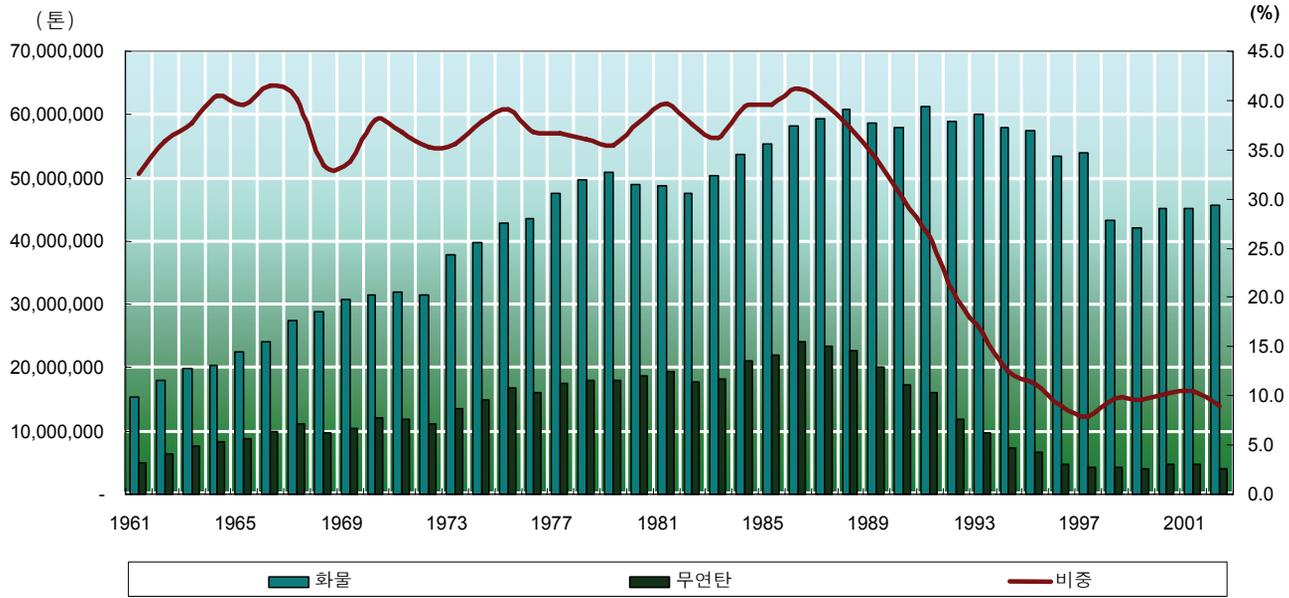
가. 철도화물과 무연탄수송 실적

지난 반세기에 걸쳐보면, 우리나라의 철도화물 수송량 중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였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전까지 철도를 통한 화물수송량중에서 무연탄의 비중은 30~40%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단일 품목인 무연탄이외에 기타 품목이 무연탄만큼이나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만큼, 무연탄이 중요하였고 이를 수송하기 위하여 철도노선의 확충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실상, 1966년도에 발생한 연탄파동의 원인도 석탄수송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국내화물수송량과 무연탄 수송량의 변화와 비중



화물수송량과 무연탄수송량 비교(톤)

	화물수송량	국내무연탄 수송		무연탄수입	무연탄수출
		무연탄	무연탄 비중		
1961	15,392,998	4,998,603	32.5%	-	-
1965	22,376,527	8,830,199	39.5%	93,990	-
1970	31,550,928	11,987,265	38.0%	1,889	-
1975	42,757,705	16,691,856	39.0%	-	760
1980	49,009,430	18,588,250	37.9%	-	-
1985	55,345,538	21,881,132	39.5%	2,537,049	40
1990	57,922,289	17,335,499	29.9%	2,345,329	-
1995	57,469,339	6,508,393	11.3%	3,016,827	-
2000	45,238,839	4,642,146	10.3%	2,472,467	-
2001	45,239,839	4,737,617	10.5%	241,891	-
2002	45,732,332	4,089,392	8.9%	2,576,597	-
연평균 증가율					
1961-1970	8.3	10.2	-	-	-
1970-1980	4.5	4.5	-	-	-
1980-1990	1.7	-0.7	-	-	-
1990-2002	-1.9	-11.3	-	-	-
1961-2002	2.7	-0.5	-	-	-

도 크게 하였다. 정부는 해마다 월동기 석탄 수송대책을 수립할 만큼, 무연탄 수송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화물수송량과 철도를 통한 무연탄수송량의 관계를 10년단위의 구간별로 보면, 1961년에 우리나라 철도화물수송량은 15,392천톤이었으며 이중 무연탄수송량이 4,999천톤으로 32.5%를 차지하였다. 이후 1970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31,551천톤으로 증가하고 무연탄수송량은 11,987천톤으로 높게 증가하여 그 비중이 38%로 확대되어 비중이

7.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2.1배가 증가한 반면에 무연탄수송량은 2.4배가 증가하였다. 1961~1970년동안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철도화물수송량은 8.3%, 무연탄수송량은 10.2%씩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한 것이다. 10년단위로 볼 때, 철도화물수송에서나 무연탄 수송에서 가장 성장율이 높은 시기로 기록된다.

1970~1980년기간을 살펴보면, 1980년은 철도화물수송



1972년 6월 9일에 증산-고한간 10.7km의 전철화 구간을 역사적인 시운전을 하고 있다

량은 49,009천톤이었으며 이중 무연탄수송량은 18,588천톤으로 37.9%를 차지하였다. 이전의 비중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철도화물수송에서 무연탄의 비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970~1980년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과 철도를 통한 무연탄수송량은 공히 1.6배가 증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공히 4.5%를 유지하였다.

이는 이전의 10년(1961~1970년)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에서 무연탄수송량 증가율이 7.5%포인트나 높았던 경험을 보면, 상대적으로 무연탄수송량의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1980~1990년기간을 살펴보면, 1990년은 철도화물수송량은 57,922천톤이었으며 이중에서 무연탄수송량은 17,335천톤으로 29.9%를 차지하였다. 이전의 비중에서 약 8%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1989년부터 비경제탄광들에 대한 석탄산업합리화가 추진되던 시기로 당시에 이미 상당수의 탄광들이 폐광을 단행하거나 혹은 폐광을 준비중에 있어 석탄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 철도를 통한 무연탄수송도 감소를 한 것이다. 1970~1980년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1.2배로 미진한 증가를 한 반면에 철도를 통한 무연탄수송량

은 오히려 6.7%가 감소하였다. 동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의 연평균증가율은 1.7%증가하였으며 무연탄수송의 연평균 증가율은 -0.7%씩 감소하여 왔다.

1990~2002년기간을 살펴보면, 2002년은 철도화물수송량은 45,732천톤이었고 무연탄수송량은 4,082천톤으로 8.9%로 대폭하였다. 철도화물수송량도 10년전에 비하여 21%가 감소하였고 무연탄수송량은 76%가 감소한 것이다.

2000년대들어 우리나라 철도화물운송에서 국내무연탄수송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철도는 무연탄수송용에서 퇴조를 한 것이다. 특히, 1990~2002년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의 연평균증가율은 매년 -1.9%씩 감소하여 온 반면에 무연탄수송의 연평균증가율은 무려 -11.3%씩 감소하여 왔다.

나. 무연탄 생산과 무연탄수송 실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연탄생산량과 무연탄철도수송량과의 관계는 1:1의 대응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양 자간에는 괴리가 발생하곤 하였는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석탄수송량이 석탄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아직까지 석탄수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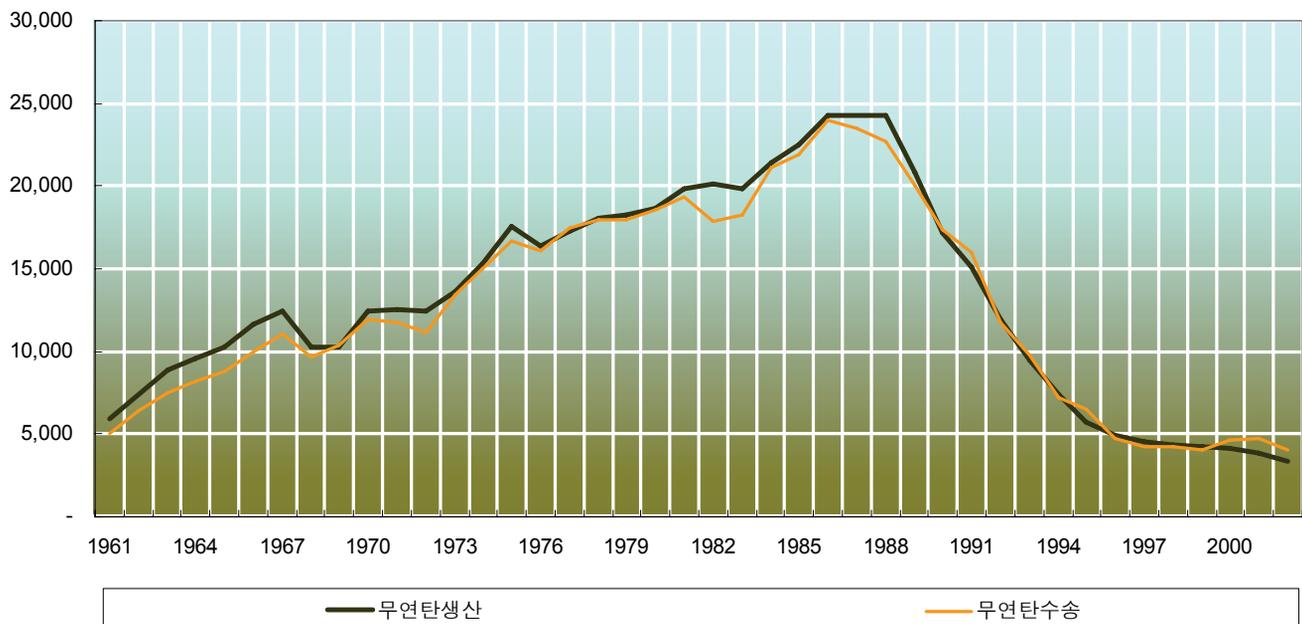
이 때문에 만성적인 무연탄 생산과 수송간에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소비지에서 크고 작은 연탄파동이 끈이질 않았고 이윽고 1966년에 연탄파동이 발생한 것이다. 즉, 1966년의 석탄생산량은 11,613천톤이었으나, 철도수송량은 9,975천톤에 불과하여 1,638천톤이 수송치 못하고 산지에서 머물렀다.

물론, 석탄수송은 철도로만 운송된 것은 아니나 당시 산업도로를 이용한 운송은 극히 저조하였다. 1967년까지도 석탄수송량이 석탄생산량을 따라가 못한 인프라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연탄파동이 재연되었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수송인프라 부족으로 수송치 못한 석탄량은 무려 9,161

무연탄생산과 철도수송 무연탄과의 관계

무연탄생산 (A)	무연탄수송 (B)	차이 (B-A)	수준 (B/A)	무연탄생산 (A)	무연탄수송 (B)	차이 (B-A)	수준 (B/A)		
1961	5,884	4,999	-886	85%	1982	20,116	17,829	-2,287	89%
1962	7,444	6,419	-1,025	86%	1983	19,861	18,254	-1,607	92%
1963	8,844	7,466	-1,378	84%	1984	21,370	21,105	-265	99%
1964	9,615	8,227	-1,388	86%	1985	22,542	21,881	-661	97%
1965	10,248	8,830	-1,418	86%	1986	24,253	24,021	-232	99%
1966	11,613	9,975	-1,638	86%	1987	24,273	23,492	-781	97%
1967	12,436	11,008	-1,429	89%	1988	24,295	22,665	-1,630	93%
1968	10,242	9,647	-595	94%	1989	20,785	19,991	-794	96%
1969	10,273	10,336	64	101%	1990	17,217	17,335	118	101%
1970	12,394	11,987	406	97%	1991	15,058	15,966	908	106%
1971	12,515	11,741	-774	94%	1992	11,970	11,707	-263	98%
1972	12,403	11,149	-1,254	90%	1993	9,443	9,798	355	104%
1973	13,571	13,408	-164	99%	1994	7,438	7,237	-201	97%
1974	15,263	15,014	-249	98%	1995	5,718	6,508	790	114%
1975	17,593	16,692	-901	95%	1996	4,951	4,784	-167	97%
1976	16,427	16,048	-379	98%	1997	4,514	4,281	-233	95%
1977	17,268	17,450	182	101%	1998	4,361	4,225	-136	97%
1978	18,054	17,913	-141	99%	1999	4,197	4,055	-142	97%
1979	18,208	17,997	-211	99%	2000	4,150	4,642	492	112%
1980	18,624	18,588	-36	100%	2001	3,817	4,738	921	124%
1981	19,865	19,370	-495	98%	2002	3,318	4,089	771	123%

무연탄 수송량과 무연탄 생산량의 추이(천톤)



천톤으로 이는 당시 우리나라 1년 석탄생산량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업철도부설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1966년에 태백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안정적인 수송인프라 적지는 다소 해소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1969년도 철도석탄수송량은 석탄생산량에 비하여 64천톤을 추가 수송하였고 1970년에는 406천톤을 더 수송하였다.

그러나, 이후 석탄 생산량은 석탄 수송량을 따라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백선 산업철

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320.8km에 노선을 1975년 12월 5일에 완전히 완료하여 석탄수송 효율을 제고시켰다. 이에 힘입어 1977년에는 철도석탄수송량이 석탄생산량에 비하여 182천톤을 추가 수송한바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가 최대의 석탄생산량을 보인 해는 1988년에 24,295천톤을 달성하였던 반면에 철도를 통한 무연탄수송에서 최대를 달성한 해는 1987년도에 24,493천톤을 수송하였다. 이때까지 철도화물수송량에서 무연탄수송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선을 유지하였으나 이후에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무연탄수요가 급감하면서 무연탄 생산량과 철도를 통한 무연탄 수송량도 감소를 한 것이다.

특히, 1989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추진이후부터는 석탄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석탄수송량도 함께 급감을 하여철도 화물에서 차지하는 석탄 수송량도 1위 자리를 빼앗기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제 4 절 석탄산업 합리화안 정선군의 종합개발시책

1.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정책

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1982~1986

정부의 종합적인 탄광지역개발지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1,990억원에 달하는 광산지역 종합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의

나. 제2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1987~1991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추진된 제2단계 사업은 예산이 2,530억원에 달하였는데 주요 사업은 광산 근로자를 위한 양적 지원을 질적 향상으로 전환을 목표로 장기 개발 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기 개발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2,530억원을 투입하여 광원 사택용 아파트와 지역 석탄회관의 건립, 공해 방지 사업의 확대 등을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백만원)

부 처 별	사 업 명	1단계(1982-1986)		2단계(1987-1991)		계	
		사업내역	투자액	사업내역	투자액	사업내역	투자액
산업자원부	학자금, 사택 도로, 공해방지시설 등	-	130,467	-	201,908	-	332,375
행정자치부	지방도포장 등	-	28,440	-	40,058	-	68,498
건설교통부	국도포장 등	159km	30,877	-	-	159km	30,877
보건사회부	보건소현대화	11개소	467	-	-	11개소	467
노동부	진폐병원	1동	5,200	2동	5,338	3동	10,538
농림부	조림산업 등	-	507	-	975	-	1,482
건설교통부	영동선전철화	-	-	87km	2,700	87km	2,700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60개소	3,525	-	-	60개소	3,525
문화관광부	도서관건립	-	-	5동	2,005	5동	2,005
합	계	-	199,483	-	252,984	-	452,467

목표를 생활 기반 시설과 후생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광산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주의식 제고 등에 두고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주요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총 1,995억원을 투자하여 광산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사택개량, 광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관 교체 등 기간시설의 정비 확충을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추진,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및 도시 환경 정비에 기여하였다.

다.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사업: 1992~1997

정부는 1991년 1월 14일에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1991년 5월에는 강원도의 정선군을 비롯하여 태백시, 영월군 및 삼척시 등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 계획(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역	사업비
계		50개	197,919
기반시설	1992-1997	22개	112,158
대체산업	1992-1997	17개	78,510
환경개선	1992-1994	6개	1,792
복지시설	1992-1993	5개	5,459

4개 시·군을 진흥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2개 사업을 포함한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계획(1992~1997년)을 수립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체 산업육성 등의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광 지역이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석탄광 폐광 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탄광 지역진흥 5개년 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4년 11월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사업비를 1,983억원으로 증액(지방비 347억원 포함)하였다.

동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하여 환경 개선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도로의 확·포장, 터널 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주민 소득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대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도에 보완한 탄광지역 진흥사업중에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태백시의 황지-장성-동점간 약 8km의 도로 확·포장, 정선군의 쇠재 터널 및 연결도로 약 2.0km 개설, 삼척시 도계읍의 도로 확·포장 17km, 영월군의 시가지도로 확·포장 약 5km 등이다.

한편, 대체산업육성사업으로는 광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등 공단 조성에 의한 고용 증대 사업과 정선군의 화암 중유굴, 태백시의 용연동굴 등 4개 동굴 개발에 의한 소득 사업 및 사북의 폴리마콘크리트공장, 고한레포츠센터 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총 50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투자규모는 1,983억원으로 재원은 국비에서 1,636억원, 지방비에서 34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과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1997~2005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탄광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대체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광지역의 경제가 침체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정선군을 비롯한 탄광지역들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탄광지역 회생 정책을 요구하게 되자, 그간의 국고 지원에 의한 국부적인 기반시설 등을 가지고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폐광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전의 지원보다 강력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유사한 국내법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 영향 평가법, 산림법의 특례, 특히, 관광 진흥법상에 근거한 카지노 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은 파격적이다. 또한, 지역개발 촉진 및 대체산업육성, 민자유치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우대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특례 제도는 폐광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되어 해당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동시에 동 지역들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임야가 대부분 국유림이고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 계획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탄광지역지원정책은 정부 한 부서에 의한 지원정책이기보다는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내용

구분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20%인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자금 등의 용자 또는 보조지원 -통산부 고시 *간접시설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책 가능 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이상 출자·고용시 *간접시설 보조지원 카지노업이익회수금에 의한 별도지원 대책 가능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확보 카지노 이익회수금에 의한 개발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도입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취득세 등(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부문배당액 소액주주에 특별배당 -1/100미만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우선고용조치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사업별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비 계획(1977-2005)(억원)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관광사업	42,958	522	393	-	-	-	129	900	41,536	
지역특화	5,261	248	66	-	173	-	9	103	4,910	
기반시설	14,052	8,333	5,142	1,951	496	744	-	4,266	1,453	
계	62,271	9,103	5,601	1,951	669	744	138	5,269	47,899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1996년 8월에 강원도의 정선군을 비롯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 4개시·군 전체면적의 17.7%에 해당하는 678.4km²와 경상북도 문경시 면적의 13.8%에 해당하는 125.9km²를 폐광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석탄산업구조조정으로 전국 탄광지대 지역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사진은 폐광으로 방치된 탄광

이후 2000년 10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면적의 26.4%에 해당하는 150km²를, 2001년 6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km²를 을 폐광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아가 폐광지역개발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산업 사업장과 연결도로망 구축 및 시가지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전에 개정된 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탄광지역진흥 5개년계획(1992~1997)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근거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1997~2005)1)은 사업동안 전체 투자액

- 1)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거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요건 : ① 88년 기준 산업생산액중 광업점유율이 50%이상인

은 무려 62,272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서는 국비가 15%에 달하는 9,103억원, 지방비가 8%에 달하는 5,269억원, 나머지 77%인 47,899억원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의 추진은 관광사업부문, 지역특화사업부문 및 기반시설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이중에서 관광사업부문이 전체 투자액의 69%에 달하는 42,958억원, 지역특화사업부문이 8%에 달하는 5,261억원, 그리고 기반시설사업부문이 약 23%에 달하는 14,052억원이다.

민자의 대부분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국비와 지방비는 대부분이 지역특화사업과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의 추진 사업을 살펴 보면, 강원도의 투자비는 43,125억원으로 4개 지자체 전체 투자비의 68.3%를 차지하며 경북은 26.6%(16,774억원), 충남은 3.8%(2,372억원), 전남은 1.3%(800억원)이다.

강원도의 추진 사업수는 108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수 216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북이 56개 사업으로 25.8%, 충남과 전남은 각각 30개, 26개사업으로 비중은 13.8%, 10.6%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의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진흥지구 SOC 등 기반시설확충사업을 중심으로 총 90개 사업에 대하여 1997~2005년까지 5,914억원을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강원도에 4,289억원으로 전체 예산중의 72.5%, 경북에 800억원으로 13.5%, 충남에 588억원으로 9.9%, 전남에 237억원으로 4.0%이다.

이를 각 지자체별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체별로 나누어 보면, 강원도가 40개 사업에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107억원을 지원하고 경북이 21개 사업에 1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38억원, 충남이 18개 사업에 1개 사업당 지원액이 337억원, 전남이 11개 사업에 1개 사업당 평균 지원

액이 22억원이다. 이에 따라 1개 사업당 지원 액수는 강원도가 가장 크다.

2005년도로 마무리되는 강원도 4개지역의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을 목적별로 보면, 관광사업이 29건, 지역특화사업이 22건, 기반시설사업이 56건으로 기반시설사업이 50%를 넘어선다.



초기의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촉진 계획도

먼저 관광사업은 전체 29건으로 건당 1,000억원 정도이며 재원조달은 국비가 0.3%, 지방비가 1.1%, 민자가 98.6%로써 거의 모두가 민자이다. 지역특화사업은 22건으로 건당 200억원 정도이며 재원조달은 국비가 1.9%, 지방비가 0.8%, 민자가 97.3%에 달하여 관광사업처럼 민자중심이다. 기반시설사업은 56건으로 건당 170억원 정도이며 재원조달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26%, 민자가 14.8%에 국비와 지방비가 높다.

한편, 정부는 1999년 2월 태백시위사태를 계기로 급속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역에 대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과 별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하는 석탄가격 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 기준은 태백시를 포함한 1999년기준으로 전국 7개 가행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

고, ② 88년기준 석탄생산량이 전국 총생산의 3%이상이며, ③ 88년대비 95년 석탄생산량이 40%이상 감소한 시·군지역인데, 이상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보전·지원하는 것이다.

3)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 추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7~2005년까지 수립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4년까지 지역별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경우, 2개시(태백시,삼척시)와 2개군(정선군,영월군)에 대한 계획된 정부

변적이라는 점이다. 즉,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폐광지역에 국고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액 산정은 태백시를 포함한 1999년을 기준으로 전국 7개 가행 탄광지역에 대하여 향후 폐광·감산하더라도 탄가안정대책비, 폐광대책비 등 감소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보전·지원하는 것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2001~2004년까지 지원한 총 금액은 2,411억원으로 강원도의 2개시,2개군에 대한 지원금은

정선군 및 강원도의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비의 국비지원(백만원)

	총사업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정선군	177,017	8,500	22,668	17,328	24,256	28,605	19,256	18,801	18,801	158,215
태백시	131,565	9,000	26,843	19,858	16,952	12,786	9,889	12,079	12,079	119,486
삼척시	67,162	4,000	9,040	9,440	6,169	4,806	6,205	9,167	9,168	57,995
영월군	53,184	2,500	10,232	7,435	7,813	6,364	4,447	4,798	4,798	48,387
합 계	428,928	24,000	68,783	54,061	55,190	52,561	39,797	44,845	44,846	384,083

주: 동 사업의 추진기간은 1997~2005년임

의 국고지원액 총 4,289억원으로서 2004년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3,840억원에 달하며 2004년까지 집행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 사업비가 가장 큰 지역인 정선군의 계획된 국고 지원액은 1,770억원인데 이는 4개지역 전체의 계획된 국고 지원액 4,289억원중에서 41%로 가장 크며 2004년까지 실제 지원금은 1,582억원으로 89%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태백시는 계획된 국고지원액은 1,316억원으로 4개지역 국고 지원금액중 31%를 점하여 두번째로 크며 2004년까지 집행액은 1,195억원으로 91%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삼척시의 계획된 국고지원액은 672억원으로 4개지역 전체 국고지원금중에서 16%를 점하여 2004년까지 집행금액은 580억원으로 진척율은 86%이다. 영월군은 계획된 국고지원액은 532억원으로 4개지역 전체 국고지원금중에서 12%를 점하여 2004년까지 집행금액은 484억원으로 진척율은 91%이다.

탄광지역사업비의 특징은 사업기간이 2001~2010년까지 정하여 있으나 동기간 총사업비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가

2,081억원으로 86%에 달한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별로 살펴보면 태백시가 지난 4년동안 1,106억원을 지원받아 강원도 전체 지원금 2,411억원의 46%에 달한다. 삼척시는 629억원을 지원받아 26%에 달하며, 정선군은 292억원을 지원받아 12%, 영월군은 54억원으로 2%를 점하고 있다.

정선군 및 강원도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계
정선군	-	7,903	9,945	11,316	29,164
태백시	18,292	27,816	31,633	32,863	110,604
삼척시	7,058	9,619	21,727	24,522	62,926
영월군	498	804	1,115	3,000	5,417
합 계	25,848	46,142	64,420	71,701	208,111

주: 동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1~2010년임

한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설치된 (주)강원랜드 과실금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0~2004년간 총 1,399억원에 달한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연도별 조성액은 2000년에 5,803백만원, 2001년에 31,751백만원, 2002년에 31,490백만원, 2002년에 32,901백만원, 2004년에 37,927백만원에 달한다.

2. 정선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가. 정선군민의 폐광지역경제 붕괴위기 의식

정선군은 1989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정선군내 석탄광수는 1989년 44개에서 1993년에는 4개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근로자도 1989년에 15천 여명에서 1993년에는 5천명으로 무려 1만 여명이 감소하였다.

이어 1993년 9월에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등 대형 탄광 폐광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어 갔다. 특히, 정선군내에서도 특히 석탄 중심지인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및 남면지역 주민들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큰 것이다. 이에 정선군 주민들은 조직적인 반발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먼저 1993년 7월 16일에 1,000명이 모여 함백광업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93년 7월 19일에는 2,500여명이 모여 광산지역 주민 생존권 찾기 결의대회를 개최하 등 지역살리기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정부(상공자원부,건설부) 및 강원도청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도의원인 성희직 의원은 1993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위와 단식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요 반발 사유는 지역공동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만한 석탄산업합리화 추진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나. 1995년 3월 3일 대정부 합의문

도출: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기틀 마련

정부는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로 무연탄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1989년부터 비경제탄광의 점진적인 정비와 경제탄광의 육성을 통한 석탄 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한 폐탄광의 증가, 근

로자, 지역인구 감소 등 탄광지역의 전반적인 침체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의 생산기반 악화로 지역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폐광에 따른 폐공가의 발생, 폐광구 유출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등으로 환경적 황폐화가 가속화 되자 지역주민들은 '폐광지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1995년 3월 3일에 탄광지역 진흥 종합대책 5개항을 발표하였다.

정선군민과 정부간 석탄관련 합의문 5개 사항(1995년 3월 3일)

- ① 고원관광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②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조기 지정
- ③ 석탄감산속도 조절 및 적정 생산량 유지
- ④ 대체산업 창업촉진을 위한 투자비 용자 지원
- ⑤ 탄광지역진흥 6개년 사업 보완 및 집중 투자

다. 정선군의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 사업 추진: 1992~1997

정선군에서 추진중인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사업(1992~1997)은 정부가 1991년 1월 1일에 석탄산업법을 개정하면서 석탄산업합리화와 함께 탄광지역의 낙후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이다. 동 재원은 총 1,979억원으로 이중 정선군에 배정된 예산은 757억원에 이르러 전체 예산중에서 3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정선군의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사업은 국비가 6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2.2%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강원도비가 52억원으로 6.9%, 그리고 정선군 예산이 83억원으로 10.9%를 차지하였다.

한편, 정선군은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사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중에서 대체산업부문의 사업수는 전체 9개로 사업당 약 50억 정도에 이르고 기반시설부문의 사업은 전체 6개로 사업당 53억원으

로 가장 높다. 반면에 생활개선부문과 복리후생부문은 각각 2건으로 사업당 4~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체산업부문 예산은 419억원에 이르러 전체 예산중에서 55.4%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선군의 인프라 등에 투입되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319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개선부문에 9억원(1.2%) 및 복리후생부문에 9억(1.1%)을 투입하여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정선군이 이같은 기반시설과 대체산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이유는 사양화하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긴박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선군내 각종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 인프라시설도 함께 조성할 필요성 때문이다. 반면에, 생활개선과 복리후생은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이다.

정선군이 추진한 탄광지역진흥사업 6개년사업은 기간내에 모두 완료되어 성공리에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기반시설부문에서는 1992~1995년에 고한~사북간 도로, 쇠재터널개설 및 증산농공단지우회도로를 건설하였으며 1995~1997년에는 함백중공단지우회도로, 예미~고성간 도로 그리고 1996~1997년에는 사북~직전간도로를 건설하여 완공하였다. 이중에서 11km 고한~사북간도로 건설에는 약 76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중 국비지원이 66억원, 군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쇠재터널 650m를 완공하는데 국비가 7억원, 군비가 1억원이 투입되었다.

기반시설부문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증산농공단지우회도로, 함백중공단지우회도로, 예미~고성간도로 그리고 사북~직전간도로이다. 증산농공단지우회도로(1.51km) 건설에는 전체 사업비 24억중에서 국비가 약 20억원, 도비가 2억4천만원, 군비가 1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함백중공단

정선군의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 세부내역과 사업결과(1992~1997년)(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역	기간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총계	19		75,173	62,208	5,218	8,287		
	소계	6		31,946	26,237	1,926	3,783		
기반시설	고한~사북간도로	도로 11.04km 교량 3기/77m	'92~'95	7,570	6,582	-	988	완공	
	쇠재터널개설	터널 650m 진입로 120m	'92~'95	7,942	7,005	-	937	완공	
	증산농공단지우회도로	도로 1.51km 교량 1기/48m	'92~'95	2,400	1,986	241	173	완공	
	함백중공단지우회도로	도로 1.786km 교량 1기/30m	'95~'97	6,164	4,771	696	697	완공	
	예미~고성간도로	도로 6.22km	'95~'97	4,000	3,300	350	350	완공	
	사북~직전간도로	도로 7.108km	'96~'97	3,870	2,593	639	638	완공	
	소계	9		41,982	34,186	3,292	4,504		
	도사곡공원개발	공원조성72,827㎡	'92~'97	5,014	4,354	330	330	완공	
	화암동굴개발	동굴개발1식	'94~'96	13,900	11,760	977	1,163	완공	
	폴리머콘크리트공장	공장건립1동	'95~'98	4,760	3,424	611	725	완공	
대체산업	고한레포츠종합센터	레포츠센터1식	'95~'97	10,332	8,445	944	943	완공	
	천포지구종합개발	마을회관외4식	'96	2,156	1,725	215	216	완공	
	아우라지개발	물놀이시설외3식	'97	1,500	1,069	215	216	완공	
	회동마을휴양지조성	오토캠프장외6식	'97	656	656	-	-	완공	
	생약센터조성	공장1동외2식	'94	2,000	1,089	-	911	완공	
	함백농공단지조성	단지조성30,250평	'93~'94	1,664	1,664	-	-	완공	
	소계	2		920	920				
	생활개선	고한,사북상수도교체	노후관교체2.8km	'94	700	700	-	-	완공
		고한,사북하상정비	하상정비1.63km	'92	220	220	-	-	완공
	소계	2		865	865				
복리후생	문화복지회관건립	부지조성300평	'92	520	520	-	-	완공	
	근로자유아시설	건물1동/200평	'92	345	345	-	-	완공	

가동중인 함백농공단지 기업유지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분양면적	생 산 품	고용인원
계	3	30,611		41
(주)오미아코리아	정총시	26,699	탄산칼슘	31
정선군이연구소	이상수	1,329	팽이버섯	4
유진철망	김재형	2,583	돌망태	6

지우회도로(1.786km)에는 전체 예산액 62억원중에서 국비가 48억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7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밖에 예미~고성간도로(6.22km)에는 전체 사업비 40억원중에서 국비지원비가 33억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3.5억원이 투입되었다. 사북~직전간도로(7.1km)는 전체 사업비 39억원중에서 국비지원비가 26억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6.4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편, 대체산업부문은 전체 9건이 추진되었는데 석탄대체산업인 폴리머콘크리트공장, 생약센터 및 함백농공단지 조성 등을 비롯하여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선군의 각종 휴양지 개발사업인 화암동굴개발 및 아우라지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고한레포츠종합센터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화암동굴개발은 전체 사업비가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비가 120억원, 도비가 약 10억원, 군비가 11억원을 투입하였다. 한편, 1993~1994년까지 조성된 함백농공단지조성사업은 17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정선군의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 개요(1992~1997년)(백만원)

사업수	예산액				사업당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군비		
기반시설	6	31,946 (42.2%)	26,237	1,926	3,783	5,324
대체산업	9	41,982 (55.4%)	34,186	3,292	4,504	4,665
생활개선	2	920 (1.2%)	920	-	-	460
복리후생	2	865 (1.1%)	865	-	-	433
계	19	75,713 (100.0%)	62,208	5,218	8,287	3,985

생활개선사업으로는 1994년에 7억원을 들여 고한과 사북 상수도 교체(노후관 2.8km 교체)와 1992년에 2.2억원을 들여 고한과 사북의 하상 정비를 실시하였다. 복리후생사업으로는 1992년에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근로자유아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정선군의 폐광지역진흥종합대책 추진

1) 정선군의 제1차(1996년)·3차(1988년)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정부는 탄광지역의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

전국의 개발촉진지구 현황(2004년 현재 기준)

구 분	1차지정	2차지정	3차지정	4차지정	5차지정
사업기간	1996~2008	1998~2005	2000~2008	2000~2005	2002~
강 원 도	탄광지역(정선, 태백, 삼척, 영월·화천, 영월)		정선, 평창, 인제	양구·양양	횡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경상북도	소백산주변(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영주·영양)	중서부평야(상주의성)	안동호주변(안동·청송)	동해연안(울진·영덕)
경상남도	지리산주변(하동·산청·의령·합천)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한법률에 의하여 4개읍면 125.6km²를 개발촉진지구로 1996년 4월 12일 지정하고 동지역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1996년 8월 12일에 지정하였다.

또한 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의 25.7km²를 제3차 개발촉진지구로 1998년 12월 30일에 지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하여 정선군의 일부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 개발을 위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종합개발 계획수립, 녹지보존지구 일부 개발허용, 보존임지전용 및

국유림 대부허용,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장을 고한 사복에 1개소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인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목적은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 또는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종합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법적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년 1월 7일 제정), 시행령 및 지역개발사업에관한업무처리지침(훈령)에 두고 있다.

지구지정 대상지역은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첫째, 낙후지역형은 8개의 선정지표 중 인구증가율·재정자립도중 1개 이상과 기타 6개 지표중 1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 미만인 지역(낙후지역 지표 :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인구비율, 도로율, 도시적 토지이용율(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 승용차 보유비율, 의사비율,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둘째, 균형개발형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지정된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내로서- 전력·용수 등의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셋째, 도농통합형은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 지역으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현재까지 지구지정으로는 낙후지역형이 31개를 지정하여 27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 계획이 수립 되었고, 균형개발형은 2개 지구를 지정하고 1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수립중이며, 도농통합형은 2개 지구 지정, 1개 지구 개발 계획 수립중이다. 주요 개발사업 유형으로는 관광휴양사업 부문에서는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온천 등 소득기반조성사업 등이고, 지역특화사업부문에서는 화훼단지, 도예단지, 한우육성단지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며 기반시설설치사업

부문으로는 도로 접근교통망 시설,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이다.

1996년도에 지정된 1차 개발촉진지구는 정선군을 포함하여 3개시와 13개군으로 전체 7개 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전체 개발 면적은 1,674.1km²에 달한다. 추진 사업건수는 137건이며 예산은 49,722억원이다. 이중 국고 지원비가 12,453억원, 지방비가 5,709억원, 그리고 민자가 31,560억원을 계상하였다. 계획상에 1차지구의 기반시설은 2004년도 완료이다.

사업 내역을 목적별로 보면, 관광휴양사업이 78건(골프장, 스키장, 휴양지, 위락단지 등), 지역특화사업이 36건(복합영농단지, 화훼단지, 유통단지 등), 그리고 기반시설이 97건(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으로 가장 많다.

한편, 1998년에 지정된 3차 개발촉진지구는 정선군을 포함하여 전국의 4개시와 10개군으로 전체 8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개발 면적은 1,483.9km²에 달한다. 3차 개발촉진지구의 주요 사업은 전체 112건으로 예산은 34,142억원에 달하며 국비가 6,315억원, 지방비가 3,834억원 그리고 민자가 23,993억원이다. 주요 사업내역은 관광휴양사업에 26건(관광지, 박물관, 종합휴게소 등), 지역특화사업이 32건(민박마을, 유통시설, 농산물단지 등), 그리고 기반시설사업이 54건(도로, 하천정비, 환경종합처리시설 등)이다.

마 정선군의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1) 제1차·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1992~1997년

정선군은 탄광지역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하여 탄광지역진흥 대책사업(1992~1997년사업)이 추진되어 열악한 탄광촌에 지역주민들 휴식공간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왔으며,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이 1999년 완료되어 탄광촌에 새로운 모

습으로 등장, 고원관광도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과 정주의식을 제고시켰다.

정선군의 1차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역	2002년까지 투자액
함백-단곡간 도로확포장	도로 5km	7,500
사북-백전간터널	터널0.6km, 접속도로0.38km	11,200
카지노진입도로	도로 3.66km, 지하차도 1식, 터널0.46km	30,664
고한 사북 시가지 재정비	시가지도로 22km, 공공시설 7식, 환경정비 3식, 지하차도 1식	61,532
증산 함백 예비지구 정비	도로8km, 교량2, 상수로 2km, 공가철거, 주거환경개선	7,366
하천정비	하천정비 22km, 보 16개소	4,500
상수도정비	노후관 교체 29km	4,470
합 계		127,232

또한,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 회생의 획기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범 국민적인 지역살리기 운동의 결실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폐광지역개발계획으로 1차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과 도로, 상수도 및 카지노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

또한, 제3차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은 크게 대체산업 연결도로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총 4개사업(3,122억 만원)이 2000년에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더불어 각종개발사업 조기 착공과 순조로운 공사

정선군의 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역	2002년까지 투자액
애산-덕우간 도로 개설	도로 4.6km, 교량 2기, 터널 0.55km	8,320
구절-왕산간 도로 개설	도로 2.2km, 교량 1기	500
정선·회동지구 시환경정비	광장및공원조성, 하수도 20km, 시가지정비 3km, 도로확포장 3km	8,840
북평·니전지구 시환경정비	시가지우회도로2km, 하수도 7.36km	2,625
여량·구절지구 시환경정비	시가지우회도로2km, 하수도 3km, 시가지정비(도로1.5km, 녹지, 체육공간)	2,625
합 계		22,910

진행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군에서는 시가지 정비사업 등에 의한 철거민 이주대책도 아파트 건립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2) 정선군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10개년 사업 : 1996년 ~ 2005년

정선군이 수립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체 탄광지역종합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군 내 개발 면적은 436.9km²로 85개 사업에 총 2조 5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 1996년 4월 12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 및 동년 8월 12일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폐광특별법에 의거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7년부터 공공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마련시 개발촉진지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된 영월과 정선지역 11개 읍면 215.8km²가 1998년 3월 3일에 폐광특별법에 의한 진흥지구로 추가 지정, 승인됨에 따라 탄광지역 4개 시군의 개발촉진지구 총



강원랜드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장면. 임시 사무실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석탄회관에 자리 잡았다(1998년 7월 23일)

면적은 678.4km²로써 개발규모는 3개 분야 109개 사업으로 4조 1,083억원(공공 8,535, 민자 3조 2,548)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정선군은 관내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및 남면지역을 고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1997년 2월 6일에 승인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추진과정에서 강원리조트, 단곡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한 종합개발 계획이 1998년 12월 26일에 변경 승인되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민자로 추진할 52개 사업(관광휴양 28, 지역특화 20, 기반시설 4)가운데 지난해까지 민자유치 공고 등을 통하여 22개 사업(관광휴양 13, 지역특화 6, 기반시설 3)을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시행자로 지정이 된 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으나, 38국도 확·포장과 카지노 사업의 안정 등으로 관광객 유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이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의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1996-2005년)

- 사업기간 1996~2005년 (10개년)
- 총 사업량 : 3개부문 28개사업
- 총투자비 1,902,269백만원
 - 국비: 153,542백만원
 - 지방비 : 49,514백만원
 - 민자유치 : 1,637.450백만원
 - 융자 : 61,763백만원)
- 부문별 투자 계획
 - ① 관광레저사업 7개사업 : 1,286,744백만원
 - 카지노, 스키, 골프장 등 복합 휴양 단지 : 3 개소
 - 휴양시설, 청소년시설 등 일반레저시설 . 4 개소
 - ② 지역특화사업 10개사업 : 300,541백만원
 - 특산물 재배단지, 축산단지 : 2개소
 - 석회석 가공단지, 제조업유치 : 8개소
 - ③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11개사업 : 314,984백만원
 - 지역간접도로, 대체산업 연결도로 : 5 개노선
 - 관광배후 도시 재정비등 환경정비 : 6 개사업